



『김신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2020년

조국의 하늘을 누리라



독서감상문 대회
수상작 모음집



공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CONTENTS

2020년 『김신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 수상작

- 학사사관 후보생 144기 00
- 학사사관 후보생 145기 00
- 학생군사교육단 48, 49기 00
- 부사관 후보생 238기 00
-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00

* 첫 페이지 차례는 대회참석 신분별 페이지수,
수상작 사이에 들어가는 소제목 차례에는
수상자 성명, 수상작 제목, 페이지수로 기입 부탁드립니다.

학사사관 후보생 144기

최우수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소대번호 : 2342 송동원

우수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소대번호 : 1342 정지혁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소대번호 : 2252 김기량

장려

〈차디찬 현실을 녹인 뜨거운 심장,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대번호 : 1327 김정우

『김신 장군 자서전』 독서감상문 대회 소대번호 : 2228 박찬희

〈김신 장군의 삶에서 사관후보생의 사명을 찾다〉 소대번호 : 2421 김채훈

* 신념의 조인(信念의 鳥人)

- 단해스 총령의 좌우명인 '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이 쓰여진 F-51D(18호기)는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로서 한국 공군력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수행
- '신념을 갖고 하늘을 난다' 뜻을 무스탕전투기에 새겨 넣으면서 우리공군의 활약을 나타내는 별칭이 됐다.
- 2016년 대한민국 문화재로 등록

F-51 무스탕전투기



*** 수상작 모음집 순서 ***

1) 학사사관 후보생 144기

- (1) 최우수 - 송동원 /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2) 우수 - 김기량 / 주인의식으로 조국에 헌신한 삶, 김신 장군
- 정지혁 / 김신, 그에게만 있었던 세 가지
- (3) 장려 - 김정우 / 차디찬 현실을 녹인 뜨거운 심장, 조국의 하늘을 날다
- 김채훈 / 김신 장군의 삶에서 사관후보생의 사명을 찾다
- 박찬희 / 거인의 품에서 자란 보라매의 꿈

2) 학사사관 후보생 145기

- (1) 최우수 - 윤현수 / 다시 시대를 생각한다 : 조국통일의 꿈을 꾸는 청년들
- (2) 우수 - 김보라 / 장교의 길
- (3) 장려 - 진종현 / 전쟁과 평화 : 빼앗긴 나라의 회복의 역사와 공군사관후보생

3) 학생군사교육단 48, 49기

- (1) 최우수 - 최종원 / 공군이 되기 위한 자격
- (2) 우수 - 고영명 / 조국의 하늘을 날다
- (3) 장려 - 오지환 / 조국의 하늘에 바친 청춘

4) 부사관 후보생 238기

- (1) 최우수 - 이소라 / 금화장
- (2) 우수 - 김혜린 / 미래의 공군을 위한 과거의 복습과 현재 나의 마음가짐
- (3) 장려 - 신영섭 / 군인의 길

5)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 (1) 최우수 - 신희용 / 글씨는 차갑다
- (2) 우수 - 이수빈 / 감사합니다, 김신 장군님
- (3) 장려 - 조현주 / 영웅이 되어

(최우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송동원

“위대한 사람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 본인이 다녔던 대학교 교정의 길목에 서있는 이준 열사가 남긴 말이다. 학교를 오며 가며 이 글귀를 새겨왔던 시절, 어쩌면 처음 국가에 대한 경례를 배웠던 학창시절부터 군 입대전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을 근무했던 시절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적확히 어떤 모습이며, 무엇이 이를 지탱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과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호한 의문은 항상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공군 학사장교로 훈련받으며 읽게 된 김신 장군의 ‘조국의 하늘을 본다’는 지금까지의 답답함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물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체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한 몸을 바친 삶의 표본이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울곧은 정신과 판단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갔던 모습을 보며 본인은 가슴깊은 울림을 느꼈다. 앞으로의 삶에서 본인의 자세와 태도를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마음의 등대를 얻었다고 확신한다.

김신 장군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고 전란이 계속되는 불운한 시대상 때문이기도 하고, 그 존재감이 무거운 독립운동가 아버지 김구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굶주림과 생명위협에 굴복해 일제에 귀의했을 수도, 또는 해방 이후의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거나 미국에서 한국전쟁의 참극을 지켜만 볼 수도 있었지만, 김신 장군은 그러하지 않았다. 매 순간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선하여 고민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는 조국과 민족 그리

고 평화라는 위대한 공적가치를 항시 우선하며, 이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내면화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금의 상황은 김신 장군이 겪어왔던 근현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삶의 주사위가 던져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보면 김신 장군과 책에 나와 있는 순국선열들의 정신이 얼마나 강건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용기있는 행동인지를 명백하게 느낄 수 있다. 비교적 체제가 확립된 상황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및 세계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확실성의 위협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율릭의 말처럼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관을 앞둔 공군 학사장교이자 나라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젊은이로서 김신 장군의 애국심과 용기를 가슴깊이 새길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정주하는 동안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할 수 있는 20세 이후의 삶을 되새겨 보았다. 특히, 국가경제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제정책 전문관료가 되기 위해 행정고시에 응시했던 시절,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입부해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때의 감정은 김신 장군처럼 살았다는 뿌듯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다. 패기있게 시작한 일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색이 바래져 버렸기 때문이다. 수년도 지탱하기 어려운 사명감 넘치는 자세를 수십년을 계속 유지해온 김신 장군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보통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것의 경중을 떠나,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망각하곤 하는데 그렇기에 상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건의 사명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 김신 장군이 책을 통해 본인에게 일러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삶이 끝나갈 무렵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물해주기 위해 몇몇한 삶의 궤적을 용기내어 집필한 김신 장군처럼 본인의 삶을 반추하는 순간 자신있게 다른이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진정으로 명예로운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신 장군은 장군 이전에 뛰어난 전투역량을 갖춘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가 한국전쟁에서 맹활약하여 조국에 기여할 수 있던 것은 굳건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임이 자명하다. 사실 입대 전까지 본인 스스로 체감했던 부족함과 불안감도 바로 전문성에 대한 것이었다. 아무리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정신을 무장한다고 하더라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느끼게 되는 무력감을 본인은 항상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쁜 현실속에서 부족함을 단계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태만이 시시때때로 올라왔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변모해가는 김신 장군의 일화와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기감 없이 발휘했던 모습은 또다른 후회와 깨달음을 주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수년, 길게는 십수 년의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인식,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안위가 아닌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었다. 무더운 인도에서의 훈련과정을 버티고 혹독한 미국 랜돌프 기지에서 훈련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분명 젊은 시절의 김신도 힘들어하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더욱이 보고 싶은 아버지를 고국에 둔 채 미국에서 훈련을 마무리해야 했을 때의 심정은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김신 장군이 책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조국의 영공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아버지 김구의 단호한 명령이었다. 어쩌면 김신이 삶을 통틀어 국가에 기여하는 동량지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벼운 마음이 아닌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의 전문능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본인 역시 다시금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더욱더 복잡한 경제·안보의 상황에서 임관을 앞둔 학사장교이자 무거운 책임을 진 경제관료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보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는 감사함과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페이지 페이지마다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고 느꼈고, 책을 덮으며 그 기운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엷은 행복한 미소를 저절로 짓고 있었다. 개

인 김신의 삶은 역경 그 자체였지만, 그러한 삶은 현재의 본인의 삶에 대응시키면서, 그 희생정신이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고 느꼈다. 만일에 하나 독립운동가들이 없어서 우리 민족이 말살당했다거나,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이 없어 한국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이후의 경제성장을 위한 각계각층에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본인은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일대기를 참으로 담담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하게 쓴 책이지만 그 감사함은 분명히 느껴졌다. 이는 비단 김신 장군뿐 아니라 김신 장군과 삶의 일부를 공유한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미처 책에 소개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감동의 깊이는 깊이를 더해갔다. 짜사이 하나만으로 끼니를 떼우면서도 장티푸스와 같은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보상의식보다는 책임의식을 가진 김신 장군께 이 지면을 빌려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더욱이 이러한 헌신의 밑바탕에는 주변 사람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안악에서 난징, 그리고 충칭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처럼 모셨던 할머니, 짧은 시간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간절했던 아버지 김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김신 장군의 주변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전우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명예로운 인간 김신 장군을 탄생시킨 소중한 힘이 아닐까 한다. 본인 역시 집에서 벗어나 고된 훈련을 받는 상황 속에 나의 부모님, 나의 동생과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옆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같이 훈련을 견뎌내는 학사사관 동기들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조국의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다 보면 김신 장군처럼 울림있고 의미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서 기본군사훈련 이전에 먼저 배운 것은 공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가치들이었다. 도전·헌신·전문성·협력의 가치를 항시 숙지하고, 생활관에 돌아갈 때는 항상 명예, 정의, 충성을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 장교교육대대의 생활관 복도와 공공실에는 그 밖에 장교로서 체화시켜야 할 수많은 가치들이 곳곳에 알알이 새겨져 있다. 그런점에서 김신 장군의 삶은 공군의 정신가치가 집약된 요체이자 '바이블(Bible)'이 아닐까 싶다. 추상적인 정신가치를 실천적인 삶의 선택으로 승화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에서 외롭

고 혼란스러울 때 희망의 길을 찾으려 성경(Bible)을 보듯이, 앞으로 공군장교이자 경제관료로서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힘을 잃었을 때 김신 장군을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숙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국가인재개발원(행정연수원) 건물에 붙어 있으며, 김구 선생님이 이를 김신 장군에게 누차 강조했던 구절을 끝으로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 대한 감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수) 주인의식으로 조국에 헌신한 삶, 김신 장군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김기량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입대한 지도 어느덧 8주차가 훌쩍 지났다. 장교교육대대에서 기본군사교육을 받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장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였다. ‘책임을 진다’라...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살면서 군대처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많은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 리더로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에 온 거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과연 내가 장교에 걸맞은 사람일까?’, ‘장교의 책무 내용처럼, 어떠한 역경에서도 올바른 판단·조치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또 각종 공공실과 복도에 붙어있는 정신전력 요소들과, 학과 때마다 듣는 공군 핵심가치들도 이상적인 이념으로 들릴 뿐 ‘군 생활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접할 기회가 생겼다. 처음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훈련기간인데도 새로운 읽을거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냥 즐겁게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한 파트 한 파트 읽어나가다보니 마치 대선배님께서 임관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소위(진) 후보생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회고록을 다 읽고 책을 덮으면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 책은,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이 녹취한 내용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김신 장군은 1922년 중국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황해도 안악에서 안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국의 다중차오소학, 안후이중학, 그리고 중국 중앙대학부속 고급중학을 졸업한 후 서남연합대학에서 공부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신분을 숨기려 가명을 쓰고

폭격을 피해 피난다니는 고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서남연합대학에서 배우고 나서 김신 장군은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인도 라호르 미공군기지에서 초등비행훈련을 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조국으로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나라가 수립되어도 너 같은 인재를 양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며 계속해서 공부하길 원하는 김구 선생님의 뜻에 따라 미국의 샌 안토니오 공군사관후보생 교육센터, 그리고 랜돌프 기지에서 조종훈련을 끝마치고 1947년 마침내 한국에 귀국한다. 이듬해인 1948년, 육군항공대 소속으로 군에 입대하여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김신 장군은 이 전쟁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일본 기지를 오고 가며 새 전투기 기종 조종술을 교육받고 새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등 여러 활약을 한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비행전대장, 공군 본부에서 주요 요직들을 맡으며 공군참모총장을 역임, 공군 중장으로 예편하였고 주중화민국 대사로 외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이어 교통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헌신하였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급격하게 바뀌는 국제 정세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역사, 그중에서도 빛나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스스로를 갈고 닦아 조국에 필요한 인재로서 활약한 김신 장군의 삶도 정말 인상깊었다.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내용들을 인용해서 김신 장군님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해보았다.

나 : 안녕하십니까. 제 144기 학사사관후보생으로서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김기량 후보생입니다. 장군님의 회고록 잘 읽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나라없는 설움과 각지를 옮겨다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종사가 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혹독한 조종사 양성 훈련을 마치고 국군으로서 입대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김신 장군 : 안신학교 때 떠난 평양 수학여행에서 본 조종사의 모습을 보고 비행사가 되리라 결심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1948년 8월 23일 국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이 쓰던 L-4에 그려진 미군마크를 직접 태극마크로 바꿔 댔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태극마크를 단 비행기를 탈 때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 : L-4연락기! 공군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본에서만 본 그 항공기를 직접 비행하신 분을 뵈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당시에 항공 분야에서는 드물게 전문성을 갖춘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항공 뿐만 아니라 언어 부분에서도 전문성이 뛰어나셔서 6·25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셨던데 간단히 어떤 임무를 맡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신 장군 :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김정렬 장군이 한국 공군 중 F-51 무스탕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 저를 포함한 열 명의 조종사가 일본 이타즈케 미 공군기지로 향해 조종훈련을 받고 무스탕 열 대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미군 교관의 교육을 통역하고 무스탕 매뉴얼을 챙겨가 비행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도 맡았었죠. 전쟁 동안 여러 작전에 참가하고, 무스탕 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에 대한 훈련도 받으면서 미군이 내준 비행기를 가지러 가기도 했습니다.

나 : 역시 전문성이 뒷받침되니까 국가에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나 봅니다. 김신 장군님께에도, 대한민국에게도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장군님께서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에도 참여하셨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모를 수 없는 작전인데, 현장에 직접 있었던 분의 생생한 이야기와 자세한 배경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이번 공감 4월호를 보니 단순히 전쟁의 흐름·전환에 기여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작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미군이 시도한 전술로는 작전 성공이 어려워 새 전술을 연구했어야 했다던데, 맞습니까?

김신 장군 : 맞습니다. 한국 공군이 철교 폭파 명령을 받고 두 차례 출격했지만, 폭파에 실패했습니다. 8천 피트 상공에서 강하해 3천 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기존의 폭격 전술은 무용지물이라 저는 4천 피트에서 강하해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전술을 펴기로 결정하였는데, 철교는 물론 주변 시설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고도가 낮다 보니 출격한 비행기 준 한 대에 폭탄 파편이

맞기도 했지만,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나 :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과감히 옮기는 추진력과 용기가 대단했던 작전인 것 같습니다. 또 F-51 두 개 편대가 팀워크를 이뤄 새 전술을 성공시킨 점이 인상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조종사들의 사기와 팀워크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 같던데 직접 편대를 끌고 출격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신 장군 : 예 동고동락하던 전우가 전사하면 사기가 크게 떨어집니다.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투비행전대장이었지만 함께 출격하였습니다.

나 : 6·25 전쟁 동안 이렇게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국에 헌신하는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또 주중화민국 대사로, 교통부장관으로... 이렇게 한 평생을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일텐데 김신 장군님을 보면서 군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왕 대한민국의 장교가 되기로 결심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신 장군 : 감사합니다.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읽고, 공군 4대 핵심가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 비록 김신 장군님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는 공군의 정신 그 자체였다.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했고 나라의 부름에 일평생 헌신했으며 자신이 갖고 닦은 전문성으로 공군의 태동에 기여했다. 또 책의 후기에서, 어쩌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 키워드를 발견했다. "우리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그리고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는 것." 여기를 읽고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소극적으로 주어진 것만 해내는 수동적인 장교보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여 발전해서 전문성을 쌓고 내 일에 정통한 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야 나라가
어느 순간, 어느 곳에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책임자로서 기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다.

시대와 역사의 주인으로서 조국에 헌신코자 한 김신 장군, 그의
회고록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정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우수) 김신, 그에게만 있었던 세 가지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정지혁

동그란 점정테 안경에 흰색 한복 두루마기.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독립운동가 김구의 모습이다. 김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김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닮아가야 할 위대한 민족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김구처럼, 공군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이다.

인천대공원에는 '백범광장'이 있다. 언덕 길을 조금 올라가면 있는 백색의 광장 가운데에 흰 빛깔의 김구 동상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현판에서 '김신'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다. 어렸을 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이름이었는데 공군 학사장교를 꿈꾸도 준비하면서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이 아버지에 이어 위대한 군인이자 국가에 헌신한 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공군 장교로서 훈련받고 있는 지금, 그의 자서전을 읽으며 그의 삶과 정신에 대해 알고 배우며 군인으로, 장교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었다. 자서전을 정독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세 가지로 뽑아 정리해보며 마음속에 새겨본다.

“지기불가위이위지, 그 아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내고자 끝내 노력한다.” 김구는 통일된 정부수립을 위해 38선을 넘어 북에 갔다. 많은 사람들은 김구가 미쳤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김구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노력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기도 했다. 그의 아들 김신 장군 또한 그렇다. 미 공군이 500여 회에 달하는 폭격을 해도 파괴하지 못했던 승호리 철교를 위협을 감수한 초저공 비행전술을 통해 11회 만에 성공한 작전을 지휘한 것을 보면 말이다. 끝까지 해내고자 노력하는 '도전'정신과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작전을 성공하려는 희생의 헌신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동기들의 말을 들곤 한다.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못 할 것 같은데” 동기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김신 장군님의 승호리 철교작전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도전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꼭 해내야 할 것이라는 “지기불가위이위지” 도전 정신을 심어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훈련이 끝나고 나서 뿌듯해하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나도 뿌듯하곤 했다. 이 훈련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남들이 더럽다고 기피하는 화장실 청소에 대한 도전과 희생은 김구 선생님, 김신 장군님처럼 큰 일은 아니지만 공군 핵심가치를 내면화하는 경합이 되었다.

“조국의 하늘에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을 김신 장군님은 평생에 걸쳐 지켰다. 젊었을 때는 직접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자유를 지켰고 나이가 들어서도 외교에 힘쓰며 조국의 자유를 지켰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김신 장군님이 아버지 김구에게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 싶다. 국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공군참모총장, 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타이완 대사 등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1987년, 김만철씨 일가의 집단 탈북 때 김신 장군님이 타이완으로 가면서 하셨던 말이 인상 깊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나를 불러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두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가 나에게서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본문 307쪽 중) 김신 장군님의 평생의 삶이 이 문장에 온전히 담겨있는 것 같다.

군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애국애민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애국심이다. 군인에게 애국심은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 진정한 용기, 투철한 충성 등의 모든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사관후보생으로서 김신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군 장교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해 본다.

김신 장군님의 자서전을 읽으며 감명깊었던 마지막 포인트는 ‘사람’이다.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또한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았다.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을 때 조금 헷갈리기도 했는데 결국 남는 건 사람 뿐이라는 생각도 했다. 지금 사회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 은사님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이들에게 도움받아 감사한 것들, 못해줘서 아쉬웠던 것들을 떠올리며 좋은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었음에 감사했다. 또한 장교교육대에서 함께 땀 흘리며 훈련 받는 학사 144기 동기들과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훈련해주시는 훈육관님들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이들과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었다.

도전과 헌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 김신 장군님의 자서전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도전과 헌신, 나라와 사람이다. 나 또한 김신 장군님의 정신을 본받아 매순간 도전하고 나라와 사람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더불어,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책임을 대신 저울 수 있는 장교가 되리라고 결심한다. 책임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만이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신 장군님처럼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선배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창공을 지키는 공군 장교의 꿈을 쫓는다.

(장려) 차디찬 현실을 녹인 뜨거운 심장,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김정우

공군 창군 19.49.10.01. 현재 대한민국 공군 2020년, 약 70년간 우리 공군이 일궈낸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우린 찬란한 지금의 공군의 모습에 눈이 멀어 과거의 힘겨웠던 시작을 종종 잊고 산다. 여기 대한민국 공군의 힘겨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 더 큰 시련을 이겨내고 조종간을 잡은 인물이 있다. 김신 장군, 그는 부푼 꿈을 안고 조국의 하늘을 날았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조종사가 되기까지, 소년 김신의 인생은 헤쳐나가야만 하는 역경의 연속이었고, 청년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책을 통해 기록한 순간순간에서 당시 느꼈을 고달픔과 인간적인 고뇌가 질게 묻어감을 느꼈다. 하지만 역경과 고통을 먹고 자라난 강철 보라매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없었다. 끝내 그는 자신을 지켜냈고, 자신의 꿈을 지켜냈고, 이뤄낸 자신의 꿈을 통해 대한민국 공군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력의 기틀을 잡는 크나큰 업적을 달성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고 안주함을 몰랐던 새는 동지에 내려와서는 다방면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힘찬 날개짓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타이완과 외교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사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타국의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목을 통해 김신 장군의 다재다능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 김신 장군이 얼마나 공군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기록에 어떤 핵심가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 보겠다.

첫 번째 핵심가치는 도전이다. 도전이란 안주하지 않고 점진해 나아가며 스스로 어려운 일에 뛰어듦을 말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불편한 관심과 우려 속에도 김신 장군께서는 도전의 불을 지폈다. 도저히 여의치 않는 배경에서 조종간을 잡기 위해 해낸 노력과 용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도전이 결코 아니다. 지나긴 어둠이 시간, 차가운 환경을 이겨내고 인내의 꽃을 피우며 자신과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핵심가치 '도전'과 완벽히 부합한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비행 교육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특정 수준이 인내심, 열정 그리고 용기가 없다면 그 문턱조차 밟기 힘든 길이 바로 조종사가 되는 길이다. 그 어려운 길을 사기왕성한 군인이었던 김신 장군께서는 자진하여 임하셨고 즐거이 비행교육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셨다. 또한, 공군조직에 김신 장군의 긍정적인 영향은 추후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도 크게 미쳤다. 공군이 갖춘 '강한 신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김신 장군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성과가 조직의 발전을 이룰 만큼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의 중요성을 책을 읽으며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두 번째 핵심가치는 헌신이다. 김신 장군의 일생은 헌신의 마음을 무겁게 담고 있다. 개인의 안위, 편안한 일상, Well-being 들을 모두 등지고 조국의 하늘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대의를 위한 무한한 희생의 자세를 값진 회고록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다. 장군의 아버지셨던 김구 선생님의 정신을 굳게 이어받은 김신 장군은 조국의 침범 당하자 누구보다 빠르게 조종간을 잡아 항공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은 지세기 대한의 국군 전 장병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굳게 믿는다. 전쟁이 끝나고 조종석을 떠난 이후에도 군인정신을 갖추고 국가의 외교와 국내 교통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봉사를 하시기도 했다. 이런 봉사와 희생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열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3년간, 누군가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공군의 장교가 되어 무거운 바톤을 이어 받겠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헌신의 자세를 굳게 갖추어 국가에 성실히 봉사할 것이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핵심가치는 전문성이다. 단순히 조종사로서 힘든 훈련을 통해 전문적인 조종 능력을 갖췄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김신 장군은 다방면에 능한 인물이었다. 외국어 능력,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쌓아둔 인맥, 새로이 맡은 직무에 빠르게 숙달하는 적응력 등등, 그의 전문성은 어디에서나 돋보인다. 군인으로서도, 조종사로서도, 대한민국의 대사로서도, 교통부 장관으로서도, 언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통해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 행적을 자랑스럽게 기록한 사실에서 그의 자존심이 묻어난다. 능숙한 업무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보는 지식과 창의성이 더욱 놀라웠다. 부하들에게 영어 교육을 권유하고, 술선수범하며 수업에 임하여 자연스럽게 부하들이 수업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 이는 부하들로 하여금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여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추세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모습을 통해 미래 지향적이고 남들보다 앞서 생각할 줄 아셨던 장군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신 장군의 회고록에서 찾은 마지막 핵심가치는 팀워크이다. '나'보다 '우리'를 개인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私보다 公을 중시하는 모습에서 남다른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있다. 조국의 해방과 안녕을 향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물과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며 한걸음 더 나아간 팀워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공군과 육군의 공지 합동 작전을 수행하며, 단순히 조직 내의 융합이 아닌 더 큰 목표를 위한 타군과의 연합활동을 통해 팀워크의 가치를 실현하셨다.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은 조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쟁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영광을 안고 있다.

공군 핵심가치는 '공군인이 지켜야 할 윤리원칙 또는 행동 판단 기준' 이다. 하지만 김신 장군께서 이러한 핵심가치를 알고 행하심이

아닌 것이 중요하다. 공군 핵심가치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공군인 선배들께서는 위 4가지 가치에 대해 솔선수범하며 공군의 맥을 이음으로써 핵심가치를 자연스럽게 공군의 DNA로 물려주셨음이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통해 증명되었다. 4가지 핵심가치 외에도 DNA를 통해 물려받은 키워드가 있다. 바로 '꿈'이다. 공군가의 첫 소절부터 등장하는 꿈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동경하는 하늘을 책임지는 공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신 장군의 회고록을 통해 꿈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되었다.

꿈을 가져본 이 라면 그 꿈을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감할 것이다. 특히, 현실이 혹독하고 여건이 여의치 못하면 그 꿈은 금방 빛을 잃고 시들게 된다. 누구나 스스로 안 될 것이라 판단하고 소중한 꿈을 시들게 하여 마음의 병을 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신 장군님은 달랐다. 1927년 6세의 어린 맘속에 품은 조종사의 꿈 지금 와서 봐도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꿈을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의 풍파를 이겨내며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냈고 이뤄냈다. 그리고 6살 보라매가 관철하며 현실이 된 꿈은 대한민국의 창공을 누비며 조국을 지켰다. 책을 통해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내 꿈은 뭐였는지,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웠는지 떠올리게 했고, 스스로 어릴 적부터 지녀온 꿈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였다. 빛을 잃고 시들 뻔했던 꿈에 생명을 넣어준 김신 장군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공군 창군 1949.10.01. 현재 대한민국 공군 2020. 약 70년간 우리 공군이 일궈낸 발전은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눈물 삼켜야 했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며 의로움이 무엇인지 보여 주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분들이 놓지 않았던 가느다란 희망의 끈, 이제는 얽혀 튼튼한 동아줄이 된 그 끈과 영광스럽게 물려받은 공군의 DNA를 변화와 혁신의 키로 여기며 우리는 날아오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더 나아가 광활한 우주를

누빌 우리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그리고 커다란 꿈을 가진
대한민국 공군이다.

(장려) 김신 장군의 삶에서 사관후보생의 사명을 찾다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김채훈

I. 김신, 그의 삶에서 보여진 사명

1. 소년 김신, 하늘에 심어진 작은 꿈

조국없는 하늘에서도 꿈이 자랐다. 일제는 조선의 하늘에 일제의 비행기를 띄웠다.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떠오른 힘은, 바꾸어 말하면 조선을 지켜낼 힘이였다. 수학여행에서 창공을 가르는 '빨간 마후라'를 본 소년 김신의 작은 꿈은 그렇게 심어졌다. 난징에 출동한 일제의 항공기들은 '폭격기'였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일제의 심장에 언젠가 죽은이의 한을 되갚아 주리란 생각은 그 시대가 부여한 소년 김신의 사명이였다.

2. 소위 김신, 다이아몬드에는 연마가 필요하다.

다이아몬드는 고열을 버텨야 형성된다. 오랜시간 깎고 닦아야 보석이 된다. 신입소위 어깨에 달리는 다이아몬드 또한 연마가 필요하다. 소위 김신의 훈련과정은 대한민국 공군의 기초가 되어야 했기에 그 누구보다 혹독했다. 조선에서는 비행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한자,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자'만 들어올 수 있는 중국군관학교에서부터 비행훈련을 받았다. 인도 라호르 미공군기지에서도 관복을 맞은 김신의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광복이후에, 조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김신에게 김구선생님은 조국의 인재, 공군의 동량이 되려면 보다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우선에 둔 사고였다. 큰아들의 사망이후 홀로 남은 아들 김신은 조국의 기둥으로 키워내겠다는 김구선생의 큰 사랑이였다. 덕분에 소위 김신의 다이아몬드는 홀로 빛나는 작은 보석이 아니라 현대공군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

3. 편대장 김신, 함께 목숨을 거는 지도자

편대장 김신은 실력과 인간대를 겸비한 리더였다. 수많은 전투에 그는 몸소 편대원을 이끌고 전투에 나갔다. 그의 명령은 주저함이 없었고 틀림이 없었다. 고향 안악상공에 '전쟁이 났으니 피난가라'는 편지를 뿌린 것은 그의 인도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상 앞에만 있는 지도자와 함께 전선을 지키는 지도자는 각 부하들의 충성도가 다르다.

공군 특성상 전투원은 모두 장교다. 따라서 파일럿들은 서로 상관과 부하이기 전에 서로 스승과 제자이며, 선후배며, 전우들이다. 한명 한명이 귀한 국가와 군대의 초석이며, 그만큼 한명 한명의 전사는 군 사기에 치명적이다. 6·25 전쟁 당시 동료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몸소 편대원들을 이끌고 김신은 비행했다. 죽음을 무릎쓰는 리더가 있었기에 다른 파일럿도 목숨바쳐 비행할 수 있었다.

'일제의 심장에 비수를 꼽기 위해 배운 비행기술을 동족 간 전쟁에 쓰게 된 것'은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하지만 무력 적화통일을 야망했던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무고한 희생을 막아내는 것은 시대의 '소명'이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전선에서 함께 목숨걸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김신은 부하들이 가슴으로부터 따르는 지휘관이었다.

4. 대사 김신, 소통과 이해로 쌓은 성과

군인의 역할과 외교관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근본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은 결국 같은 역할이다. 대사 김신은, 외교관이라는 낯선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의 업적 중 인상깊은 부분은 「가오슝한국소학」을 건립한 일이다. 대사는 '외교관'이기 전에 그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보호자이다. 그는 주 타이완 한국인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교민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에 귀 기울이고, 대만 육전대와 협상하여 일을 추진시킨 것은 그의 능력이다. 장제스 총통의 말처럼 '일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잘 판단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대사 김신은 업무수행에 정확히 적용했다. 8년간 그는 한중 양국의 교량이 되었다. 이는 한국, 타이완 양쪽과 모두 소통하며

양국의 정세를 깊게 이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확인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야단도 치며, 춘절엔 그들을 대사관에서 밥먹게한 것은 그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이다. 그는 명령계통과 원리원칙을 지키는 지도자이면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사였다.

5. 장관 김신, 현장에서 민생을 보다.

김신 장관은 도로 등 교통시설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자 답사를 다니던 지도자였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벽은 높아서 그가 처음 적응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만 다니던 당시 실태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국도를 다니던 버스, 트럭도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업적 중 하나이다. 이는 탁상공론하는 장관은 결코 알 수 없는 현장의 문제점이었다.

대통령 경호팀의 불성실한 태도를 현장에서 예의주시한 것도 그의 성품에서 비롯하였다. 그는 경호팀의 잘못을 보고하여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사소한 잘못이라도 국가와 안보를 위해서 정정해내는 모습은 그의 강직한 면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종사 출신이자, 행정가이며 고위 장성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파일럿들의 임금 협상문제에도 중재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장의 민심을 아는 지도자이기에 가능했다.

6. 국회의원 김신, 경쟁력이 된 전문성

미국 민항기가 한강을 넘어왔을 때 경고 사격없이 한국측이 이를 포격한 사건이 있었다. 다른 의원들은 항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없이 이를 분석적·비판적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김신 의원은 민항기의 속도·방향·고도 등 기술적 질문을 했고, 우리측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었다.

II. 이 책을 읽는 공군장교후배의 사명

1. 학사사관 후보생, 전문성을 국가에 기여하라.

Si vio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오로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공군 학사장교는 각 대학, 각 전공에서 모인 전문가 집단을 지향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어찌보면 인생에서 단 한번있는 '병역의 의무'를 보다 보람차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어 입대한 이들이다. 공군의 전투원에선 파일럿이 중요하지만, 1명의 파일럿을 창공에 띄우기 위해선 99명의 비파일럿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국의 부름에 응하고자 하는 것, 이들이 학사사관이다.

2. 기본에 충실한 현장지휘관이 되어라.

기본에 충실한 군인, 나아가 장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학사 144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특기는 달라도, 학사사관 후보생들은 공군 핵심가치 아래에서 결국 하나다. 세월따라 공군교육사령부 또한 외관은 쌓전벽해로 바뀌어있어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 있다. 20대 청춘을 조국에 하늘에 바치리라고 들어온 '사복입은 젊은이'들이, 훈련을 거쳐 그들의 책임을 자각하는 '공군 소위'가 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본의 충실하고 그다음 전문성을 축적해 나갔던 김신 장군처럼 소위가 되는 훈련을 받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마할 필요가 있다.

3. 또 다른 '김신 장군'이 나와야 한다.

제 2의 김신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나, 시대가 영웅을 만드나, 지금까지는 김구 선생, 김신 장군 등 영웅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위기 속 영웅이 없다면 대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명의 영웅만큼 중요한 것이 100명의 기본에 충실한 시인이다.

이 책에선, '제 2의 김신'을 기대하게 하는 훌륭한 제도들이 보였다. 첫째, 전쟁 중에도 파일럿에게 영어교육을 하여 「전쟁 이후의 세계적 인재 육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수학여행 다녀오라며 김용대 선생이 김신 장군 할머니께 건넨 3원은,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 노블리는 오블리제」의 전형이다. 빈부격차를 뛰어넘어 교육의 평등이 있었기에 소년 김신은 꿈을 가질 수 있었다. 공군참모총장이 된 이후, 김신 장군이 어린이들을 수송기에 태우는 행사는 '선의

피드백'이 되어 또다른 파일럿을 키웠다. 이런 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군관학교에서는 항일의 이념아래, 한국인과 중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인종, 출신 구분없이 융화되어 교육하였다. 큰 목적아래, 이데올로기의 갈등없이, 출신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하는 것이 제 의 김신 장군을 키워낼 제도이다.

4. 조국을 위해 오늘도 군화끈을 조여매라.

조국의 희망은 세대를 건너 뛰어서 20대 청년들이 새로 군에 들어오는 데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이 땅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산화되었던 또다른 '젊은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관후보생의 의무이다. 앞선 143기수, 70년간 조국의 하늘을 지켜온 선배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지키고자 한 가치를 전승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사관후보생의 권리이다. 김신 장군의 책을 읽고, 나는 광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뛰었던 '그 시절 젊은이'처럼 나는 오늘도 군화끈을 조여맨다.

(장려) 거인의 품에서 자란 보라매의 꿈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4기)

이름 : 박찬희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그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원어민 교사에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불안하지 않느냐’는 진지한 물음을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의 내 또래였을 그 미국인 선생님에게 한국이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렸던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에이, 전쟁이 어떻게 나요’하며 선생님을 무안하게 만들었었다. 60만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800여 대의 항공 자산을 운용하며 매년 수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이 국가가 불과 1세기 전 전운이 휩쓸고 간 상처투성이의 역사를 지니고, 아직도 사실상 전쟁 중이라는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듯한 생생한 증언과 경험, 이야기는 다르다. 영웅의 아들로 태어나 하늘의 별이 된 사나이, 그의 삶을 통해 나는 전쟁과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1) 영웅의 탄생 - 삼대에 걸쳐 이어진 정신의 계보

김신의 일대기에서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할머니였다. 한 영웅 일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가장 깊은 뿌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부터 민족과 겨레의 안녕을 지키고자 앞장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었으리라. 독립운동을 이끄는 아들에게 서슴없이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동포의 총에 맞았던 말이냐!”고 호통을 칠 수 있는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 삼대가 모두 흔들리지 않는 조국애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출발점엔 김신의 할머니가 있었다. 또한 김신의 할머니는 권위자인 원로들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이

믿는 신념과 주장을 관철시키는 용기를 지녔다. 외압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그 용맹한 기개는 당시 상처 입고 쓰러져가는 조선이 다신 발돋움할 수 있는 튼튼한 동량이 되었으리라.

항상 조국의 미래를 제일로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은 어머니에서 아들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임종의 순간까지도 민족의 통합,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김구의 살신성인하는 자세는 그를 아버지를 둔 김신 장군뿐만 아니라 오늘날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만약 김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통일을 지지하던 세력,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꿈꾸던 이들이 그 뜻을 이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많이 달랐으리라. ‘지기불가이위이지’의 마음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신의 암살 계획을 알고서도 주저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정신, 그것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겨레가 하나된 모습을 꿈꾸는 애국심은 김신 장군의 삶 속에서도 깊이 새겨져 있다.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미국에서 만난 동지회 사람들에게 “이 먼 데까지 와 가지고 아직도 서로 싸우십니까?” 하며 호통을 치는 모습은 ‘역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자연스레 떠오르게 하며, 그 속에는 또 원로들 앞에서 당당히 주장을 펼치던 할머니의 모습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삼대의 삶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 그 시대 정신은 단순히 현실에 눈 먼 이상주의자의 헛된 꿈이 아니라 숭고한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고단하고 값진 목표이다. 그 목표는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아직도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 있고, 그 갈등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익이 우선시되는 국제관계와 정세 속에서 김구 일가 삼대의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2) 외로운 철새의 비상 - 김신 장군에게 비행이 지니는 의의

1922년에 태어난 김신 장군은 1948년, 27살이 되는 해에 국군에 조종사로 입대했다. 학사사관 후보생들과 비슷한 나이다. 그래서 더욱

그가 조종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궁금해졌다. 책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보았던 조종사의 모습이 그 이유라고 나와 있으나, 그 아래엔 좀 더 심층적이고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어린 시절 보았던 한 장면이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유년 시절의 꿈을 위해 청춘을 바쳐 낯선 땅에서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것은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신 장군은 쿤밍에서, 란호로에서, 샌 안토니오에서 비행을 배우는 동안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 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짐작해본다.

2-1) 망국 실향민으로서의 설움

김신 장군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조국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독립 영웅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도망다니며 수차례 가명을 썼다. 그의 아버지 김구는 민족의 영웅이었으나, 자상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국도 가족도 없이 단지 할머니에게만 의지해야 했던 어린 김신의 삶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했을 것이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중대부중에서 김신이 아닌 '김신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홀로 서야 했고, 그는 그 시절을 "정말 지독하리만큼 외롭게 지냈다."고 회상한다. 그에게는 머무를 곳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다. 그야말로 외톨이의 삶이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을까? 쫓기고 쫓기는 실향민의 삶, 그것은 김신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키워드였다. 내가 그였다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꿈꿨을 것 같다. 외압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두 날개를 원했을 것 같다. 그렇게만 된다면 언젠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날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2-2) 거인 같았던 아버지의 존재감

영웅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흑자는 영화 같은 스펙타클한 삶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아픈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에게 영웅의 삶은 핍박과 고난, 그치지 않는 시련의 동의어였다. 일제강점기 조선과 같은 약소국에게 영웅이란 민족적 사명을 짊어진 거인과 같은 사람이고, 그 책임의 무게를 진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멸사봉공의 자세로 겨레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김구와 같은 사람을 그 누가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을까?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애뜻한 한편 든든하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집을 나서야 했던 아버지의 넓은 등을 김신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민족의 사명을 짊어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인의 뒷모습을, 아버지가 있었던 높이로 비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비행은 김신에게 단순히 고도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행은 외로움, 슬픔, 고독과 같은 인간의 개인적 감정을 더 원대한 가치로 승화시켜나가는 고된 수련의 과정이다.

3)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

세대를 거둬갈수록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주제는 추상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은 현실 논리에 밀려나고, 분단의 아픔을 조금씩 망각되어 간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통일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들 ' 때문에(due to)'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 '에도 불구하고(depote)'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신념의 힘이다. '국력이 약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항일 투쟁을 그만두었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당장의 현실적인 이유를, 수치로 보여지는 손실들은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한 맺힌 꿈을 추구해나가야 할 최후의 보루가 바로 군대라고 생각한다. 장교 후보생으로서 우리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반으로 통일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좇아야 한다. 또한 공군인으로서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가치를, 우리의 선배 보라매가 날아간 향로를 좇아 비상해야 한다.

(최우수) 다시 시대를 생각한다 : 조국통일의 꿈을 꾸는 청년들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5기)

이름 : 윤현수

시리아 내전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2017년 10월 나는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의 터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써 터키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나는 쿠르드족 분쟁, IS 테러, 키프로스 분단 등 다양한 국제 분쟁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터키 대학원에서 재학하던 터키 공군 파일럿 “카라만”대위가 시리아 내전에서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비보를 전해들었다. 전쟁을 공부하면서도 징집을 피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던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아픔을 느꼈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처음으로 마주했다.

어릴적 백범의 꿈을 간직한 채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살았던 나는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은 청년이 되었고 통일은 교과서에서나 적힌 비현실적인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시대는 침묵하지 않았고 백범의 꿈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바로 김신 장군, 백범의 아들을 통해서다. 백범은 말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민족이 분열되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중략)...어렵다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p.119).” 백범의 말처럼, 어렵다고 주저앉아 통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넘어 어떻게 민족통일을 이루고 완전한 조국독립을 실현할 것인가? 이에 대해, 시대의 풍파를 이겨내고 백범의 꿈을 이어온 김신 장군은 회고록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갈등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향하는 거대하고 깊은 역사의 흐름이 이어질 것임을, 또한 우리 모두가 이어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다

(p.135). 김신 장군은 과연 어떻게 “현실의 유불리, 조건과 상황의 굴곡”을 넘어섰을까?(p.135).

첫째, 분단된 조국을 통일해 완전한 광복을 이루는 꿈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둘째, 시대정신을 깨우치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과 이로 인한 상실감을 견뎌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세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김구의 못다 이룬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성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굳은 결의와 온전한 헌신을 통해, 김신 장군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백범의 꿈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조국통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원주의적 질서가 자리 잡힌 현대 사회에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비극이 초래한 수많은 사회갈등을 안고 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각자 개인은 통일의 과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가 자각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 장군은 회고록에서 어떻게 처음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그는 안신학교 재학시절 일본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던 평양의 미람 비행장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 “펼럭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경을 쓴” 비행사를 보고 비행사가 될 결심을 했다(p.33). 이후 중국공군군관학교에 입학한 김신은 본격적으로 비행훈련을 받기 위해 인도령 라호르를 거쳐 미국의 랜돌프 비행학교에 입학했다. 라호르에 있을 시기에 김신은 아버지 김구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김구는 김신의 귀국을 만류하며 비행훈련을 계속할 것을 권했다. 김신은 이때, 김구의 권면이 “해방된 조국의 하늘에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고 말한다(p.331).

나 역시 김신 장군이 조국의 하늘의 나는 꿈을 가졌던 것처럼

럼 나 개인의 꿈을 어떻게 조국통일과 연결지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만큼 어려움과 한계에 끊임없이 직면했다.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키프로스 섬 분단 연구이다. 동지중해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은 서로 다른 민족으로 나뉘어 70년대 이래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일협상이 상당히 진전되어 현재 양국민은 자유롭게 국경을 드나들고 심지어는 상대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대학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받아 내가 모든 것을 기획한 이 현지탐방연구에서, 나는 나와 한반도, 우라 모두의 미래를 보았다. 통일조국의 하늘을 꿈꾸었던 김신 장군처럼 나는 키프로스 섬의 그린라인(국경완충지대)을 걸어서 통과했고, 내 조국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꿈꾼다. 나는 학자가 되어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꿈은 언제나 도전과 시험을 거치기 마련이고 시대는 늘 잔혹하게 꿈의 실현을 방해한다.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자유로이 날고 싶었던 김신 장군은 “역사는...(중략)상상과 꿈과 결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회고한다(p.209). 결국 이념 사이의 갈등으로 민족과 조국이 갈라지고 하늘마저 갈라진 것이다. 적으로 마주하게 된 동족을 바라보며, 김신 장군은 자신이 배운 비행기술이 동족과의 싸움에 쓰이는 것을 몹시 비통해했다(p.208).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대의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역사의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 우리는 조국통일의 사명과 더불어 시대정신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더이상 통일이 필요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 도 지난 지금 세대의 청년들에게 북한은 어쩌면 통일의 대상도 전쟁의 대상도 아닌, 그저 아무 의미없는 제3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극도로 고도화된 정보기술의 혜택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냉전도, 세계대전도 끝나버린 이 시대에 전쟁이란 역사서의 고리타분한 기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

나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전쟁의 참화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고, 국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이, 종교와 종교, 인종과 인종이 서로를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수많은 세계 모든 곳의 분쟁처럼 우리 한반도의 문제 역시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갈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목인한 채로 통일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에 통일을 외면하고 포기하며 거부한다. 현실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만다. 38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분단을 막으려던 백범을 두고 사람들은 “정세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p.134). 이를 두고 김신 장군은 「논어」의 “지기불가위이위지”, 즉, 아니 될 것을 알면서도 끝내 노력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한다(p.134). 시세의 잔물결로 평가할 수 없는 백범의 깊은 뜻은 “분단에서 통일로 향하는 거대하고 깊은 역사의 흐름이 이어질 것임을, 또한 우리 모두가 이어나가야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의 행적에서 잘 드러난다. 김신 장군이 말하듯, “하늘의 명을 통째로 바꾸고 시대의 대세를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바로 “혁명”이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의 시련을 넘어서는 것 역시 가히 혁명적인 일인 것이다(p.135). 혐오와 다툼으로 점철된 이 세계에서 우리는 민족애와 참된 애국심을 되찾아야 한다. “좋은 때만 나라 사랑하고, 슬프고 고단하고 배고프고 추울 때는 나라 팔아먹고 변절하는 건, 그건 애국일 수 없지 않느냐”는 백범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p.157). 통일은 역사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터키에서 공부하다 결국 병역문제로 조국에 돌아온 나는 분쟁 속에 사는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다. 집을 잃고 길에서 구걸하는 시리아 난민들과 백사장에 떠밀려 와 머리를 박은 채로 죽어 있었던 쿠르드족 꼬마가 생각한다. 우리의 분쟁 역시 현재진행형인데, 사람들은 점차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이웃과 세계를 사랑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시련 앞에서 조국 통일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은 시대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김신 장군이 몸 바쳐서 지켜낸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기 위해 공군 학사장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과 이로 인한 상실감을 견뎌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깨달은 조국통일의 사명과 시대정신은 또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전해진 것임을 우리는 김신장군의 회고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신 장군은 시대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숭한 생이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일제치하의 조국, 내전으로 불안한 중국 내륙, 뒤이어 남북으로 갈라지는 혼란 속에 김신 장군은 친형,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장제스처럼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연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이를 하나하나 일어가는 과정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들을 잃게 되고는 한다. 그렇게 우리의 꿈과 사명은 시대의 시험을 거치게 된다 누군가에 이끌려 길을 나선 우리들은 우리를 이끌어 가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잃고 결국 홀로 남게 된다. 이 외로운 길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역경에 맞서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소중한 조언자들을 하나둘씩 잃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가 되고는 한다. 나 역시 유학 시절 할아버지를 여의고 잠시 공부를 쉬어야 했다.

김신 장군은 그런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이어나갔다. 미국 랜돌프 공군 기지에서 단독비행을 할 때, 그는 할머니와 부모님을 생각했다고 회고한다(p.97). 자신의 사명 앞에, 조국 독립 앞에 헌신해 처음으로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른 하늘에서 오는 가족들을 만난 것이다. 분명히 단독비행은 그의 성과였지만 그가 그 고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헌신했겠는가? 자신이 이룬 일임에도 그 영향을 가족에게 돌리는 그의 자세에서 우리는 그가 꾸었던 꿈

이 소중한 이들을 상실한 뒤에도 여전히 백범의 꿈이고 우리 조국의 꿈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나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께서는 15년을 공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미국에서 그 당시 파견교육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이다. 그런 할아버지를 지켜보며 꿈을 키운 나의 당숙은 공군 예비역 준장으로서 당신의 꿈을 이루셨고 내게도 새로운 꿈을 전해주셨다. 이처럼 조국을 지켜낸 청년들의 꿈은 세대를 거듭해 세월과 죽음조차도 초월한다, 나 또한 앞선 어른들을 본받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전해진 꿈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꿈을 잃은 채 방황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면 너의 가슴 한켠이 아픔을 준다. 우리가 젊어서 배운 수많은 지식과 기술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길거리에 희망없이 내몰린 청년들을 본다. 테러와 난민으로, 기아와 역병으로 신음하는 국제사회를 바라본다. 이 비극, 서로가 서로에게 샷대질하고 서로를 등지고 서로와 경쟁해야만 하는 이 비극은 한두 사람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의미의 분단이다, 세계는 셀수도 없이 많은 조각과 파편으로 갈라지고 부서져 있다. 분단의 비극이란, 이 혐오와 분노와 원망은 여기 한반도에만 갇혀 있지 않다. 이 비극은 우리 인간이 지닌 인류애를 상실한 것에서 온다, 김신 장군이 말하였듯 “시대가, 역사가 우리 모두를 그 길로 내몰았다(p.331).” 우리의 분단은 세계의, 모든 인류의 분단이다.

그렇기에 남북으로 끊어진 조국을 회복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혁명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김신 장군의 말처럼 “하늘의 명을 바꾸고 시대의 대세를 바꾸는”일이고, 시세의 잔물결 속에 고하게 자신의 사명 앞에 “지기불가위이위지”의 자세로 순종하는 백범의 꿈이기도 하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기록된 바대로 최후

의 마지막 사람, 최후의 마지막까지 독립투쟁을 실천해야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대를 넘어선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에 녹아있다. 우리는 단지 그 꿈이 우리의 것임을 깨달아야 할 뿐이다.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되찾기 위해 김신 장군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첫째는 조국 통일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요, 둘째는 시대정신을 알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마지막은 상실을 넘어 미래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는 김신 장군의 마지막 소망을 기억해본다. “당장 통일은 어렵더라도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해나가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바라며 아버지 김구의 신념을 마지막까지 간직한 장군의 의지를 기억해본다(p.330).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할 분단의 비극 앞에 나는 다시 일어선다, 언젠가 순백의 옷을 입고 목놓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허다한 무리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 중에 보면서 오늘도 나는 다시 시대를 생각한다.

(우수) 장교의 길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5기)

이름 : 김보라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영웅들의 소리없는 헌신]

나는 어릴적 부터 내 조부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 이름은 조부께서 지어주신 것이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걸음걸이마저 비슷했다. 조부는 내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조부의 오른쪽 다리에는 총상이 있었다. 6.25전쟁에 참가하여 생긴 상처라 하셨다. 그 상처의 기억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있다. '역사책에 쓰이지 않은 영웅들의 소리 없는 희생'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당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나라가 한 사람, 하나의 영웅이 있어 세워지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영웅이라함은 영광스러움 그 자체인데 아무도 모르게 스러져갔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절로 숙연해졌다.

그러한 정신이 한 사람의 기억과 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다. 나아가 그 정신을 이어 나아가야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로서 국가나 민족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어린 내가 할아버지의 총상을 보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조부의 고통을 함께 느꼈던 것이요 소리없이 헌신했던 영령께 대한 경의 때문이요 그 정신이 마음속에 뿌리내림을 느꼈기 때문이다.

가끔 훈련이 힘들 때면 생각한다. 이제는 '위라벨'이나 'yolo' 따위의 시대정신에 익숙해진 내가 왜 입대를 하였는지 '초심'을 되짚어본다. 국민 모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대는 국가와 함께, 혹은 그 이전에 탄생하였으며 국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군인으로서 이바지 하고자 입대를 결정하였다. '이름없는 헌신1'이 되어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것 같았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공군장교의 길을 가겠다는 나의 선택에 걸맞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짚는다. 어느날 대대장님께서 '장교는 책임을 지며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훈련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계급장을 달게 된다고 전부 장교가 되는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먼저 군인으로서 위국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책임지고 인내하는 자리의 무게를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근면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는지 성찰해본다.

[위국헌신의 길과 선택]

육신은 가도 정신은 남아서 길이 기억된다. 김신장군은 자서전에서 「백범일지」가 아버지 김구선생의 정신 그 자체라고 언급한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신 김신장군이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고 한 「백범일지」에 담긴 정신은 무엇일까. 일제강점하 눈도 못떴을 젓먹이가 어머니를 여의고 고아가 될 뻔했다. 걸음마를 막 땀 무렵엔 아버지와 헤어져 9년만에 처음 만난 숙명의 버거움을 나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김신장군은 대의를 위해 고독한 길을 먼저 가신 어르신을 생각한다 하였다. 운명이나 환경, 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놓인듯하여도 본인의 "결단"이 없고서야 그 고된 삶을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숙명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것이다. 김신장군이 애국애족의 대열에서 선두를 지킨 것은 아버지의 정신과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의 조부님의 충상을 보면서 말로는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책임감을 느꼈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는 생각을 한다. 위국헌신의 길을 "선택"한 우리는 운명처럼 자라난 그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기꺼이 받아드릴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임지고 인내하는 자]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새로 부임할 수령에게 전하는 가르침으로 상관을 쉬이 두려워 말라 하셨다. 이는 기강의 엄정함이나 지휘계통을 무시하거나 상관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관의 평가를 두려워 하여 대의와 도를 저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김신장군은 상관뿐만아니라 상관의 중상모략에도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와 처사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기본에 충실하며 대의를 위한 삶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살면서 기본을 지키는 것과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나의 안일을 찾느라 대의를 저버리게 되는 일이 많다. 장교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무수히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동기의 잘못에도 책임을 질 줄 알라는 것이다. 솔직히 내 한 몸 챙기기도 버겁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내 수궁할 수밖에 없게된다. 장교란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함께 하는 것. 어렵지만 '공익'이나 '대의'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수칙임을 깨닫게 되었다. 군인정신은 아주 사소하고 가까운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으며, 신실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매일 새롭게 연단하는 사람]

공익이니 대의니, 누구나 말로만 보여주는 것은 쉬운 것이다. 책임을 지며 인내하고, 용기가 필요하단 것도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 그 말들이 주는 명확한 의미는 형상을 숨긴채로 혼란스러움만 커질 때도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영웅'도 마찬가지로인 듯하다. 그 단어가 주는 명예로움의 이면에는 처절한 외로움이 있고 그 가족들의 고난이 있다. 모두를 위해 '나'를 수그르게 하는 삶 말이다.

나는 김신장군이 아내를 추억하는 부분을 몇 번이고 읽었다. 부인을 회상하는 부분과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느끼셨던 수 많은 감정들을 나열한 문장을 눈에 담을 때 눈물이 함께 고

였다. 나라를 위한 길, 장교로서의 무게,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그 멋진 각오가 무색할 만큼 차가운 현실 속에서 제 정신으로 공익을 위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가? 김신장군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강인한 분이다. 늘 불안하고 외로웠으며 따뜻한 가족애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그토록 조국과 민족을 위해 굳건히 살아내셨을까 자서전을 읽는 내내 장군의 삶은 공(公)을 위한 일심으로 가득하신 분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장군을 연단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

위국헌신하는 장교의 길을 선택한 우리는 알 수 있다. 내가 받들기로 한 대의를 믿으며,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나부터 나서야 한다는 정신과 그것을 등졌을 때 느껴지는 죄책감을 도구로 삼아 나를 단련해야한다는 것을.

[마치며]

입대를 앞두고 홀로 카페에 앉아 삶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했던 때를 기억해본다. 나는 명예롭게 죽기 위해 죽는 삶이 좋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누구보다 명예를 추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정이 여전히 그 목표를 위해 유효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김신장군의 자서전을 읽고 한 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선조들의 노력과 내가 애쓰고 있는 이 시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나도 함께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것으로 나에 대한 반성을 마쳤다.

지금생각해보면 죽음까지 생각하며 삶의 커다란 방향은 찾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며, 책임과 헌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는 부족한듯하다. 뜨거운 여름 날 카페에 앉아 입대를 준비했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내가 선택하여 걷고 있는 이 길에서 책임을 지고, 인내하며, 연단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 고민해야겠다. 장교가 지는 책임은 일신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나의 동료와 부하와 함께 일하는 모든 근무자에게 연대의식을 느끼며 나의 일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힘이들것 같을 수록 더욱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육체를 단련해야겠다. 오늘 하루 조금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웃음을 보여야겠다. 사소한 일이라도 수행으로 삼아 좀 더 바람직한 결론을 내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김신장군과 같은 큰 산처럼 되고싶다. 곳은 날씨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매일 내 자신과 대화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잃지 말자고 다짐한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모두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하게끔 싶을 때, 과욕으로 나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지기불가위이위지'. 아니될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내보이겠다.

소속 : 장교교육대대 학사사관 후보생(145기)

이름 :진종현

1. 김신 장군과 21세기 공군학사사관 후보생

휴전국이지만 한반도 전쟁 이후 최대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21세기 젊은이들에게 김신 장군의 회고록은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저자 개인의 출생연도인 1922년부터 부친의 저서 「백범일지」 중국어판 출판 기념식이 열렸던 1994년까지의 개인사를 회고하는 본 저서는 단순한 자서전이나 일기가 아니다. 이는 중국에서 자라 중국·인도·미국을 거쳐 군사,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고국의 하늘에서 비행하며 전투를 벌였던 군인의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군복을 벗은 후 교통부 장관, 외교관으로서 활동한 기록들을 고려할 때, 본 저서를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록물로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본 저서를 단순히 정치서, 역사서, 군사전략서로 평가하기에도, 개인의 희노애락 책장 사이사이에 깊게 스며들어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듯하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효과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일 수 있겠지만, 책 서두와 끝에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우리가 속한 우리의 나라가 다시는 우리가 겪어온 비극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앞으로 당명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통일과 국가의 평화와 안녕의 추구하고 유지에 대한 진심 어린 소문과 결의를 전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또는 전후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로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공군학사사관 후보생들은 전쟁과 가난, 민족의 갈등과 분열이 가져오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 특별히 더 둔감하기 쉬운 세대의 장교후보생이다. 때문에 단순히 군사전략과 첨단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 군사훈련의 단계를 거치고 임관하는 것을 군인

화와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세대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지키기 위해 치렀던 대가들, 그리고 그것이 일부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과 좌절되었을 때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위해 싸우고자 하는 이 나라의 가치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를 알지 못한 채로, 군인의 모양만 흉내내는 용병처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과 보람없이, 삶에 의미에 대한 확신없이 하루하루를 권태롭게 흘러보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2. 애국애민의 뿌리: 생명과 화평에 대한 사랑

1) 나라의 소중함과 김신장군의 애국심은 김신장군 개인의 고생스러운 유년기를 읽으면서부터 느낄 수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만2살 때 자신의 모친을 잃고, 17세에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를, 23세에는 자신의 친형을, 27세에는 부친을, 그리고 그로부터 22년 뒤인 1971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김신장군의 삶은, 그 장면장면마다 어두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왔다. 또한 장군 본인도 장티푸스·맹장·탈장·말라리아 등 수많은 병마에 시달린 역사도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삶의 고생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그는 질병과 죽음과 슬픔을 알았던 사람이다.

장군 개인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불행과 자신의 불행을 동일시 한 데서도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나라를 되찾은 후의 기쁨을 기록하며 김신 장군은 “나라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회고하였던 점에서 나라의 안녕이 곧 장군 자신의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애국정신은 부친 백범김구의 영향을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김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과 외교 활동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도 모친(김신 장군에게는 조모)께 맡겨둔 채, 어린 아들과 몇년이나 떨어진 채로 활동을 했을 정도로, 대한독립이 자신의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겼다.

이에 김신장군이 성인이 되어 비행훈련을 받을 시기에, 광복

이 이루어지고서도 김구는 아들에게 귀국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비행교육을 끝까지 이수할 것을 명했고, 이것은 광복이후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북의 적화통일로부터 막아내는 열매로 까지 이어졌다. 이는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은, 공군의 자랑스런 역사인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은 다름아닌 바로 김신장군이 고 민하고 실행에 옮긴 작전이기 때문이다.

애국정신이 단순히 나라없는 슬픔과 비참에서만 비롯된다고 볼수는 없겠지만, 김신장군 자신과 그 아내와 장인어른(임학준), 부친과 조모까지 독실한 기독교인(기독교는 죽은자의 부활에 소 망을 두는 종교이다.)을 가졌던 점, 그리고 부친 김구가 김신장 군의 1947년 귀국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한경직 목사의 천막교 회예배당에 데려갔다는 사실로 비추어볼 때, 삶과 죽음에 대한 김신 장군의 진지한 태도는 장군의 애국활동과 정신과 분리될 수 없는, 상호에 영향을 주고 받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세 대보다 죽음과 슬픔에 대해 더 잘 알았음이 분명하다. 죽음을 미워했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 리 선조들은 생명을 사랑했기에 애국했다.

2) 광복이후, 외교관으로서 치열하게 활동하며 중국·타이완· 미국 등의 국가를 누비며 우리나라를 세우고자 힘썼던, 특히 젊 은 시절에는 아버지 김구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의 실 현을 위해 방북했었던 김신장군의 활동들은 그가 단순히 국가와 민족의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 다. 장군은 부친과 마찬가지로 민족분열의 현실에 대해 애통해 했으며,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면서도 도전한다는 공 자의 말. 知其不可爲而爲之(지기불가위이위지)를 인용한 맥락에 서 우리는 그의 진심깊은 민족사랑, 화평사랑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한반도 전쟁때 전투조종사로서의 출전 경험을 상고하면서 '내가 동족과 싸우기 위해 비행기술을 그토 록 열심히 익혔단 말인가?' 자문하며, 훗날 이에 대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내 조국의 산하에 폭격을 해야만했던 이

비극은 나 개인만의 비극은 물론 아니었다. 시대가 역사가 우리 모두를 그 길로 내몰았다'고 회고한 마음에서, 그가 단순히 전투나 전쟁승리, 자국생존에 관심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화평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애민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공군 사관후보생들이 마음에 새겨야할 군인정신임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국군의 이념과 사명이 명백히 밝히듯이, 우리 국군은 단순히 자국의 영토·영공·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분단이 민족의 고통스런 현실임을 재인식하고, 주권유지를 위해 힘쓰면서도 남북의 이념적·지리적·경제·문화·사회적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운 국가, 사회, 심지어 주변의 이웃에 까지도 무관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무관심이 애국애족에 치명적인 결함임을 점점 자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김신 장군은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를 살리고자 공군의 개혁과 안정, 국내 정치의 안정을 통한 나라 세움, 더 나아가 국제관계를 통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애써왔지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소원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는 민족의 화평또한 사랑했던 것이다.

3. 군인정신의 기초와 완성, 사랑

본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라의 안보와 번영을 이해 힘써야 하는, 우리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애국관이 현재 우리가 발을 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이룬 근본정신임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광복을 위한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통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함이 진정한 애국이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투지와 끈기의 정신적 유산임을 배울 수 있다.

6.25한반도 전쟁의 역사를 통해, 국제관계의 유지·증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자주국방을 위한 안보적 노력 또한 지금의 우

리를 만들어주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껏 해온대로, 아니 그 이상의 노력과 탁월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제공권 장악이 전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임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학사사관후보생 중 특히 '공군'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공군 특유의 전문성과 기술력, 자식과 정보력향상에 더욱 힘쓰는 군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애국정신을 넘어서서 애국애민 정신이 우리 선조들로 하여금 하나로 뭉쳐 이 나라를 세우게 해온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이룩해온 국가의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마침내 이루지 못하여 가슴속 깊은 곳의 한으로 남겨왔던 한반도 통일의 대과업을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한다.

본 저서의 저자 김신장군은 책을 출판한지 3년만인 2016년에 소천하셨다. 향년 95세로, 인생의 풍파를 모두 지나고 후회할 것 없는 애국자·애민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셨다. 장군 당신께서도 그의 조모께서 광복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셨어도, 하늘에서 보셨을 것을 믿으며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또한 장군과 선조들이 남겨두고 가신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과제를 이루었을 때 하늘에서 기뻐할 고인의 모습을 미리 그리며 힘을 얻어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나는 생명과 화평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랑정신이 바로 우리 공군학사사관후보생들을 진정한 군인으로 완성시켜줄, 끝까지 지케내고 되살릴 유산이라고 확신한다.

(최우수) <공군이 되기 위한 자격>

소속 : 항공대학교 3학년(학군 49기)

이름 : 최종원

이 책의 저자가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 장군님이시라는 사실은 책을 읽기 전부터 제게 책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 뼈아픈 역사인 일제감정기의 항일운동 또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항일 운동에 큰 획을 그으신 김구 선생님을 늘 존경했고, 업적을 알기 위해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김신 장군님이 아들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신 장군님의 자서전이 낯설지 않았고, 좀 더 마음에 가까이 닿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님이 직접 눈앞에서 보신 항일운동은 어땠을까,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전쟁을 겪어본 조종사의 얘기는 어떨까, 나라를 위해 몸 바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 제가 궁금해왔던 점들을 장군님의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레었습니다. 저도 김신 장군님처럼 어릴 적부터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기동을 하는 비행기도 너무 멋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군인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에서 이 두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도 꿈을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신 장군님이 어릴 적에 비행장 견학과 폭격하는 장면을 보고 꿈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온갖 어려운 상황을 다 겪으시면서 꿈을 이루셨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책에서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리더십, 배움, 헌신, 최선을 다하는 노력(자세) 4가지입니다.

첫째, 김신 장군님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신 장군님의 할머니는 일제의 수많은 압력과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 대쪽 같은 절개로 독립운동가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도 자신의 암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내일 목이 꺾이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집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와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김신 장군님 역시 나중에 중요 직책을 맡으셨을 때 본인만의 판단의 잣대를 가지시고 상대방의 태도와 의견에 명확하면서 단호한 자신만의 견해를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유없는 고집과 반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김신 장군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갖춰야 하는 점이며 특히 저희와 같은 장교들이 갖춰야 하는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리더십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너는 이런 리더형이니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각 유형의 특징을 획일적인 틀에 갇어 두고 정형화한 사고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람을 획일

적인 틀로 재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의 일면만을 나타낼 뿐 모든 것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시만의 가치관, 소신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수용하는 부드러움 속에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리더십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선택의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둘째, 배움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김신 장군님은 중국과 미국에서 비행에 관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시고 조종술을 익히셨습니다. 김신 장군님이 그 시절에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된 것은 김구 선생님이 아주 강경하게 배움을 밀어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독립이라는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독립활동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려면 건문을 넓히고 국력을 길러야 미래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김구 선생님은 미리 생각하시어 책에서처럼 김신 장군님을 교육시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학문의 수양이 우리의 인생의 길(미래)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체계가 없고 막연한 길로 빠질 수 있기에 배운 것을 기반으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역사)나 현재의 문제에 대해 고찰했으면 그것을 극복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배울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배움이 서로 유연하게 작용하여 독립을 이끌고 그 이후에 안보와 발전을 이끌었듯이 배움이 진정한 힘과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독립만을 바라보고 한 희생,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같은 정신은 그 무엇으로도 제가 온전히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김구 선생님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우셔도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셨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가족과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셨고, 목숨을 바치는 일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각해보는 것이지만 내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흔들림과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이분들처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분들과 똑같은 수준의 희생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성급한 단정일 수 있지만,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희생이라는 감격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목숨 바쳐서 지켜오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계속 능력을 연마하여 훌륭한 조종사가 되어 국가의 여공을 수호하고 안보의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은 베품으로서 번식하며 행복은 인색함으

로 질식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베품, 희생이라는 것을 더 행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넷째, 책을 읽으면서 리더십, 배움 헌신, 희생과 같은 중요한 큰 가치들도 배울 수 있었지만 장군님의 일생을 보면서 삶의 자세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지키기 힘들 바로 노력입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것도 헌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신 장군님은 참모총장을 하거나 장관직 등에 재직하셨을 때도 정체된 문화를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바뀌나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김신 장군님께서 교통부 장관으로나 외교대사로 계실 때 부당한 요구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대통령께 하거나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강경하게 밀고 나가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대다수의 조직원들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김신 장군님은 교통부 장관에 재직 중이실 때도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체계 도입을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반대에 부딪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셨고 조금씩 바뀌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조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신 장군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울 점인 장군님의 가치관과 행동 모두 개별로 따로 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힘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책에서 느꼈듯이 저는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아가 조국의 하늘을 자랑스럽게 날 수 있는 순간이 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주시고 지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선조들의 큰 뜻이 담겨 있는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김신 장군님처럼 자서전을 남길만한 위인을 되지 못하더라도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학군단에 지원한 이유를 늘 되새기며, 김신 장군님이 보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나라의 전투조종사가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 가치관과 신념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신 장군님과 학군단, 교육사령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수)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속 : 한서대학교 3학년(학군 49기)

이름 : 고영명

기초 군사훈련에서 김정렬 장군님, 최용덕 장군님의 대단한 업적은 많이 들었습니다. 학군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독후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 장군님이라는 것은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등 많은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은 알고 있었지만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의 자손들의 삶, 그 중 백범 김구 선생님의 둘째 아들인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 더욱 기대감이 컸습니다. 태어났을 때 일제 강점기 시대였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고 바쁘신 아버지로 인해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신 김신 장군님은 중국군군관학교, 랜돌프 비행 학교에서 조종사가 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그 이후 육군항공대에서 헌신, 나라에 헌신하신 김신 장군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신 장군님 어렸을적 안신학교 4학년 때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일 육군항공대 미립비행장을 견학하면서 조종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저위 어렸을 적 꿈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본가가 서울 김포공항 근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을 자주 보고 지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 공항에서 일하시다 보니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해주시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비행기에 관련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견학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로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웅장한 비행기의 크기와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공군 학군단 후보생이 된 것과 항공기계학과에 들어간 것이 너무 설렘니다. 앞으로도 항공기와 만날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신 장군님 어렸을 적 삶은 정말 힘들고 고난했다는 걸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신 장군님 아버지 김구께서 독립운동가이시다보니 일본에게 일거수일투족 감시받기 마련이었고, 회유와 자유가 억압된 삶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초 군사훈련 때 2주동안 자유도 없고 군인화 되어가는 제 자신이 멋있기도 했지만 솔직히 힘들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2주도 힘들다고 생각한게 부끄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김신 장군님 할머니,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분명 할머니께서 김구 선생님께 독립에만 집중하라고 성내셨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족에게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 할머니, 김구 선생님 부인은 독립에만 몰두하게끔 희생하셨기에 김구 선생님께서 더욱 독립만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김신 장군께서도 부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호르에서 훈련을 받고 계실 때 광복을 접하게 되었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텐데 김구 선생님의 돌아오지말고 비행기술을 더 익히라는 한마디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일본이 패망한 점, 우리 힘으로 몰아내지 못한 점에서 크게 안타까워하신 부분을 저는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항공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계신 김구 선생님의 안목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 있을 당시에 일본 전투기의 무차별 폭격같은 상황을 겪고 항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광복인 상황에서도 냉정히 아들에게 비행기술을 익히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더 읽고 나니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조국의 하늘에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바라보신 김구 선생님을 본받아야 겠다는 생각과 힘들고 국내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꼭 참고 고된 길을 계속 가신 김신 장군님께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남북분단, 6.25전쟁 등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김신 장군님께서 중화민국 대사로 가셨을 때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고 장제스 총통과 인연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사임무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맺은 인연을 잘 이어나가고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점이 주중 대사를 하면서 더욱 관계가 잘 풀리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부인분께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해주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신 장군과 부인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또 알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중국, 국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김신 장군님께 도움을 주신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립이라는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주독립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한 김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같이 힘을 내주었던 주변인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선에서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인맥을 두고 싶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을 읽고 내가 먼저 옳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맥, 사람이 된다면 충분히 내 주변엔 좋은 사람이 넘쳐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났던 구절이 있습니다. '지기불가위이위지' 알면서도 그것을 해내고자 끝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일의 성패를 이리저리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하면서 진퇴를 가늠하는 행태는 김구 선생님과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민족의 분단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분에게 몇몇 사람을 시기와 음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전하고 실천하고자 했다는 점이 너무 감명깊었고 본받아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의 깊이를 시세의 잔물결로 평가할 수 없는 일,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라는 두 말 역시 제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선열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장군님이 공군 참모총장으로 지내실 때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하고 돈을 타간다거나, 총장 임기를 마쳤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는 등 그런 관행을 회수하셨다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쓰는 것도 군인의 애국이라고 생각하신 점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군인의 근본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을 두 번정도 읽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옳은 길을 가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 가느다란 희망은 생기고 그것으로 버티나가게 해줍니다. 저는 조종 장학생이 아니다 보니 비행 교육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감히 가늠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한때 조종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도 해서 조종장학생이 아닌 지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정예 장교 후보생이라는 점에서 달라진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신 장군님의 정신과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학군사관후보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 <조국의 하늘에 바친 청춘>

소속 : 한서대학교 4학년(학군 48기)

이름 : 오지환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이 책의 초반에는 김신 장군님의 할머니의 손자를 향한 애뜻한 사랑이 정말 남달랐다는 걸 보여준다. 고아가 될뻔했던 그를 할머니께선 두고 보지 않으시고 몸이 시원찮은 가운데서도 김신 장군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애처롭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어린 나이의 김신 장군께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볼수 없어 아버지를 모르고 살며 ‘할머니’라는 말을 가장 불러봤다는 부분이 마음이 아팠다. 누구나 당연히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는 어릴 적부터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 손에 자란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할머니께선 아이 혼자 키우는 것조차 벅찬 나이임에도 힘겨운 몸을 이끌며 손자를 끄찍이 여기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 학교 선생님께 찾아가 “병신 되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서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라는 말을 통해 손가자 부모님 없이 살면서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모정이 느껴졌다. 나 역시도 중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맞벌이로 할머니 손에서 커왔다. 그렇기에 할머니에 대한 감정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 할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내가 최대한 스스로 하길 바라셨다.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나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웠고, 김신 장군처럼 불만 없이 착실하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혼자서 체득하게 되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독립운동으로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다 보니 항상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래도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주어 할머니와 김구 선생으로선 그것만으로 뿌듯해 하셨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며 살아오셨던 그 모습이 참 아련했다. 우리는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느끼는 부모님의 존재를 모른 채 ‘할머니’라는 단어로 첫 말을 뱉 것, 아버지를 봐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할머니께선 김신 장군을 고아로 만들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그 마음은 참으로 존경할만한 것 같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가를 부르셨다는 모습에서 정말 지극히 손자를 사랑하심이 드러난다. 또한 김구 선생께서 모친의 죽음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평생소원이 조국의 광복이었고, 그러한 소원이 자신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린 것이 참으로 모순적이고 안타깝다고 느꼈다.

가족보다 조국이 먼저셨던 아버지, 김구

난 책을 읽으면서 김구 선생께서 언제 다시 들어와서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사실까 생각했었다. 그러지 못하고 늘 도망자 신세로 살아간 그 아버지의 마음 역시 한편으로

안타깝다. 어머니와 아들을 두고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늘 쫓기듯 도망치며 숨고 살아가는 김구 선생의 인생이 어찌면 인간으로서 가정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며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조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

나는 아마 그 시절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보다도 또 그보다 먼저인 가족이 우선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김구 선생께서도 가족이 그리고 늘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가족들을 뒤로한 채 독립운동에 전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조국이 가족보다 먼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게 어찌면 조국이 없다면 가족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고 느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신 장군이 해외에서 비행 훈련을 받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그에게 끝까지 비행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의 혜안이 매우 돋보였다. 만약 조국으로 돌아왔더라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시간낭비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본인의 꿈인 조종사가 되겠다는 것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 공군 조종사가 되고 훗날 공군참모총장이 되기까지 김구 선생님의 혜안이 없으셨더라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립운동가 아들의 삶, 그리고 수 많은 인연들

김신 장군의 아버지인 김구 선생님께서 독립운동가이시다 보니, 일제 치하 시절동안 본인 역시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늘 중국인으로 위장하거나 이름이나 성씨를 바꿔서 숨어 살아야했던 것이 안타깝다. 좋은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와 함께 돌아다니며 살아간 그의 모습에서 안타까움과 경의를 표한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어린 마음에 아버지에게 독립운동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조국의 광복이 그의 최고 소망이었기에 김신 장군과 할머니께서도 그것을 이해하며 살았을 것이다. 가족보다 조국이 우선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에 섭섭하기도 했을 것인데, 그런데도 할머니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김신 장군의 인생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신 장군 주변에 늘 지인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찌면 책의 절반 정도는 그가 만난 인물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도움 덕분에 넉넉잡은 삶이더라도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만 받으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것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아버지의 공로가 있었기에 그 가족이 도움을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으며

나는 이 책을 읽게 되기 전부터 김신 장군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곤 있었다. 물론 장군님의 회고록이 책으로 나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었다. 김신 장군님을 알게 된 것은 작년 2학기 군사학 교양 수업으로 학교에서 들은 ‘국가안보론’이라는 수업에서 팀별 발표를 하게 되면서였다. ‘한국전쟁에서의 공군의 활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

행하였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큰 활약을 한 ‘바우트-원(Bout-One)’ 대대의 활약상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바우트-원 대대는 한국인 조종사 10명을 포함하여 미국의 딘 헤스 대령의 주도 하에 움직이 대대이며 그 가운데에 김신 장군께서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발표 과정에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인물이기도 했다. 어쩌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던 이 책을 공군 역사재단 덕분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

우리 조국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을 읽으며, 나 스스로가 공군 장교 후보생으로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또한 전투기를 타고 일본을 폭격하겠다는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 하나로 시작한 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고 참모총장과 교통부 장관 시절까지의 그의 인생을 써낸 이 책을 보면서, 광복 이후에도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되며, 강한 군대를 통해 우리 조국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 시절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인생자체가 어쩌면 비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도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조국을 위해 살아온 김신 장군의 마음이 이 책을 읽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헌신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깃들길 바란다.

(최우수) 금화장

소속/성명 : 부사관교육대대 238기 이소라

“이제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발을 들여놨으니 계속하는 것이다.”

나는 부사관 교육대대에서 다른 후보생들과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채로 입대를 하게 되었다. 인생에 대한 경력이 조금 더 있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싶다. 주변의 19살, 20살인 다른 후보생들을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스무살의 나를 돌아보면 아직도 후회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책을 읽다 보면 ‘후회한다’라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나였으면 후회한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도 ‘아쉽다’, ‘섭섭하다’ 정도로만 표현된다. 아마 김신 장군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왔기 때문에 뒤돌아 후회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며 마음가짐을 달리 하려 한다. 항상 군인이 되고자 했던 나에게 지금 이 부사관 교육대대는 그동안 후회라고 표현했던 많은 것들을 ‘아쉬웠다’라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제 나는 성공 여부를 막론하고 발을 들여놨으니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처음 부사관이 되고자 했을 때 내 주변 몇몇 사람들로 부터 다니던 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가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들었었다. 수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었던 답은 단순히 ‘더 늦추기 싫어서’였다. 더 늦게 입대를 하면 군인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공군은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장교고 타군과 다르게 최전방에 다들 참가한다.’ 이제 나는 그 막연한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계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공군은 공군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러한 점들이 내가 생각해왔던 군인의 원초적 이미지인 ‘직접 나선다’는 이미지와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 보인다. 다시 한번 내가 발을 담그고자 하는 공군이라는 이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그런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에 흠집 내지 않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부사관의 역할도 생각해보게 된다.

김신 장군은 한 민족 내에서의 싸움을 이취워했고 작은 나라 안에서 파를 나누는 것에 화가나 열변을 토하는 장면도 나온다. 개인적으로 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의 군 생활에서도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입대 8주차에 접어들어가는 지금, 같이 지낸다는 것은 마치 연애와 같아서 살아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대화를 나눌 땐 천생연분

잘 맞는 것 같다가도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살아온 방식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지기 마련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고 남북 사이의 갈등 관계가 매우 악화 된 상황도 아니기에 모두에게 한마음, 한 뜻을 갖자고 강요를 할 순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인 만큼,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배려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마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발을 뺀 김구선생과 김신장군도 이런 마음으로 38선을 건너지 않았을까 싶다.

“내 임기 최후의 5분까지 내 힘을 다 사용할 것이다. 임기 이후의 일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김신 장군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군인의 애국이라 생각하며 말한 구절이다. 이 구절 외에도 책을 읽다보면 김신장군의 ‘고집’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첫째로, 공군 참모 총장이 되자 공군과 관련이 없지만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것부터, 총장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경호사병이나 운전병 등)을 임기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전부 회수한 장면이다. 나는 가끔 쓸데없는 용기에 불타 괜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 받았을 때에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될 때에도 이미 이렇게 험악해져버린 상황이 보내는 상황적 압박과 괜한 자존심에 인정하지 못할 때가 그렇다.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용기는 아무 때나 부리는게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을 때 부려야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남들이 ‘아니오’할 때 ‘예’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기있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관행이라 여기며 행하는 악폐습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앞으로 내 군생활에도 필요할 것 같다. 또 그런 용기가 ‘선진공군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관광국장이 고쳐야 할 점이 있냐 물었을 때 했던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그럼 당신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한소리 하겠습니다.” 김신장군의 경우 공자묘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공자묘 관리 목적을 위한 모금’을 같이 제시해 주었다. 이제 나는 앞으로 군생활을 하며 계급의 위,아래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과 일하게 될 것이다. 같이 일을 하면 분명 고쳐줘야 할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알려줘야 할 때가 올 텐데 나는 그런 것을 성격상 잘 말하지 못한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 혼자 머리를 싸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장면이 좋은 해결책이 된다. 누군가에게 고쳐줬으면 하는 점을 말할 땐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해준 후 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같이 전해준다면 듣는 상대도 ‘아

이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구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단점이 노출된 민망한 상황이지만 슬기롭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격이 은근히 고집이 센 편이다. 이런 나의 고집있는 성격을 군인으로 일하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된다. 김신장군의 저러한 선택도 결국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고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점으로 여겨지는 나의 고집도 수기, 치인, 신독의 자세를 가지고 뜻있게 펼쳐 군생활을 하다보면 젊은 장교들의 존경을 받는 김신장군의 고집처럼 박수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김구선생이면 어땠을까? 주어진 운명이 내가 견뎌 내기엔 너무 무겁다 생각이 들어 도망치지 않았을까? 다른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에게 '제 2의 누구'라는 식의 타이틀을 붙이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2의 누군가 아니라 저사람은 저사람이다!'하고 얘기하곤 한다, 자신을 제2의 누군가라며 표현해주시기보단 그 사람 자체로 봐주길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김신장군은 다르다. 책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백범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한 점이 나는 새롭게 보인다. 비행연수를 받는 도중 귀국을 말리는 아버지의 답장을 받아 미국으로 연수를 위해 떠났을 때도, 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이완 대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결국 운명이 정해져 있어도 수행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전쟁 속에서 산다고 한다. 김신장군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자신의 할 일을 찾고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나도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을 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부사관 교육대대라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덧붙여 '금화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과 전 국방부 장관이 차지하고 싶어했던 보금자리였던 만큼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곳일지도 궁금한데, 이런 의미를 담아 내가 있는 이곳이 누군가에겐 오고싶고 갖고싶은 '금화장'같은 곳임을 인지하고 남은 훈련 기간에 임하기 위해 제목을 붙였다.

(우수) 미래의 공군을 위한 과거의 복습과 현재 나의 마음가짐

소속/성명 : 부사관 교육대대 238기 김혜린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문장을 들으면 누구든 자서전 혹은 위인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 말이다. 나 또한 책을 받고 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과연 김신 장군은 공군이 지금껏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일들 하시고 진행하셨는지 많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 궁금증의 답은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장군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크셨는데 할머니께서 김신 장군의 어머니의 역할까지 하셔야 했는데 나이도 드신 분이 손자를 아들처럼 키우는 일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옛날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는 옛날에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어린 친구들을 보면 소수의 애들이 어른들에게 예의도 없고 할머니와는 친하게 지내는 가족도 없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옛날과는 너무 달라져 있고 ‘정’이라는 것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과연 김신 장군의 할머니 마저도 안 계셨다면 김신 장군의 일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할머니는 어머니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그의 인생 동반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김신 장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이 전쟁과 고난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 항일 독립 전쟁, 중국의 국공 내전, 한국 전쟁, 그리고 전쟁과 분단으로 힘든 그 시기를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쓰러진 국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과연 내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김신 장군과 같은 일상을 아니 비슷한 일생을 걸었을까? 나는 아마도 버텨 보려고 하다가 금방 주저 앉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부사관 후보생인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미성숙한 것 같으며 아직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누군가의 업적을 읽을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변한다면 그 업적을 세운 사람처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부사관 후보생이 되던 그 날의 마음가짐이 생각이 난다. 원래는 군인이신 아버지와 100기수 차이를 만들고 싶었지만 군인이 되기에 아직 부족했는지 100기수 차이를 두지는 않았지만 101기수인 238기 부사관 후보생이 되었다.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아버지와 같은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서는 내가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100%의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해답을 구했다. 나의 유년시절은 김신 장군의 유년시절과 다르게 보냈지만 그래도 조국에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다. 아직 미성숙한 후보생이지만 후에 김신 장군처럼 조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든다. 김신 장군은 유년시절을 비행학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였다. 그에게 비행학교는 지금의 김신 장군을 만들어 주었으며 우리나라 공군에 큰 기여를 하고 역사를 남겼다. 나에게 공군이란 어떤 이미지이며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군인이 되고자 하기 전에는 그저 비행하고 하늘을 지키는 그런 이미지 였으며 당연히 육군은 땅을 지키니깐 공군은 하늘을 지키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군인이 되고자 하였을 때 나에게 공군은 하늘을 수호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며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공군을 위해 내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 역시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실천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부딪히고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 늘 생각만 하고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게 된다면 발전하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에 어떻게 조국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김신 장군의 업적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랬구나, 이런 시절을 보냈구나'하면서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김신 장군의 전부를 다 따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의 업적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 노력에 대해 나는 어떤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이 책을 보고 생각을 정리했다. 첫 번째 조국을 위해 내가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신 장군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조국과 공군을 위해서 비행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각 비행단에서 전대장이나 단장을 맡으시며 공군에 큰 힘을 기여하셨다.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 훈련이든 즐거이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에 실천하고 향동을 다해야 한다. 이유는 국민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늘 청렴하고 한치도 부끄럼이 없어야 떳떳한 모습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김신 장군처럼 늘 청렴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

람이 되어야 겠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들도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갖고 한다면 주변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며 일의 능률도 증가하고 결과물도 좋을 것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행동을 수행하면서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업적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완전하게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업적을 읽고 난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김신 장군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제대로 된 군인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 나는 김신 장군의 업적이 담긴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었으며 생각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실천을 해야할 때이다. 비록 아직 후보생인 신분이지만 내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과 잘못을 하거나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 훈육관님께 들었던 피드백을 통해 바뀐 내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다음 기수에 들어올 사람들과 주변 지인과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유는 공군의 중요한 부사관이 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함으로서 이 책을 읽게 되고 이 책에는 김신 장군이 우리나라 공군을 위해 수많은 일생과 힘을 쓴 일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공군의 간부가 되기 위해 우리 간부들은 과거 선조들의 얼과 소망을 이어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선조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초급간부가 될 나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공군인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서 공군을 위해 누가 많은 힘을 썼으며 힘을 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여 지금의 공군이 있게 되었는지도 알려주고 싶었다. 김신 장군의 회고록이 단순하게 공군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 물론 공군과 관련이 있어서 책을 접할 수 있었지만 김신 장군과 관련된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자에 대한 업적도 접할 수 있었다. 김신 장군이 이 회고록을 기록하시면서 김신 장군의 아버지께서 김신 장군에게 하신 말씀 중 "귀국을 미루고 비행 기술을 더 익히라"라는 말에 김신 장군은 아버지의 명령이 조국의 하늘에서 태극기를 단 비행기를 몰며 조국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신 장군의 아버

지 말처럼 그때 당시에는 비행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에 가서 비행기술을 익혀야만 했었다. 하지만 비행 기술을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김신 장군은 수많은 노력을 하셨다. 아마 타지에서 교육을 배우고 익히면서 조국을 향한 그리움은 이루 말할 것 없이 크셨을 것 같다. 내가 만약 김신 장군이었다면 귀국을 미루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감을 가졌을 것이다. 타지에서 생활한다면 분명 고향, 가족, 지인이 그리워서라도 바로 귀국을 했을 것이다. 김신 장군은 조국을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인내로 조국을 지키기 위한 비행기술을 익히셨고 그로 인해 지금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김신 장군이 책에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세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어갈 사람으로서 예전에 우리가 고통 받았던 일들을 놓치지 않고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가 두 번 다시 빈번되지 않도록 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화합을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앞부분에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초급간부가 될 나로서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우리의 지난 역사들을 잊지 않고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키워야 한다. 지금은 후보생인 나 자신에게 묻는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잘 할 수 있는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든 열심히 잘 해야한다. 앞으로 간부가 될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많은 교훈을 느꼈으며 앞으로의 군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장려) 군인의 길

소속/성명 : 부사관 교육대대 238기 신영섭

어렸을 때 중국에서 지낸 적이 있다. 한 3년정도, 내키진 않았지만 중국어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못이겨 간 것이었다. 그 곳에서 잊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 나의 뇌리에 강렬히 박힌 일이 하나 있다. 중국 남부 창저우에서 지내다 베이징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다. 자금성 앞에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생애 처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미리 날카롭게 갈아놓은 것 같은 카드로 자신의 목을 그으며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불과 2m정도 앞이라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자살행위가 일종의 시위행위였던 것 같다. 그는 5분도 안돼 중국 공안 여러명이 들이닥쳐 어디론가 들려갔다. 말 그대로 ‘들려’갔다. 어디로 갔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당시 어렸던 나는 너무 충격이고 무서워서 며칠 악몽을 꿀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 왜 난 그때 도망치지 않고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을까? 아마 비유하자면 교통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옆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를 보게되면 너무 놀라 순간 사고나 몸이 정지될 때 그 상황과 비슷했을거라 생각한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광장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자신의 목을 긋고 있는데 나 외에 주변의 다른 중국인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었다. 마치 아무것도 못봤다는 듯이. 분명 봤을텐데 말이다. 이처럼 무섭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에도 좋았던 일, 좋은 사람은 많았다.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나아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전보다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중국 공산당, 피를 보란 듯이 흘리고 있는데도 못본척 하고 지나쳐버리는 중국 국민들, 실제로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그렇다. 교과서로만 배워온 북한도 중국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과 다를 바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곳. 나는 그곳에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다였다. 6.25이후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삶, 한민족, 동족상잔의 슬픔, 내 친구의 할아버지가 사는 곳,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 외웠을 뿐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다. 내가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기 전까진 말이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내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다. 내가 이 책에서 특히 관심있게 본 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라를 되찾으

려 힘쓰는 독립운동가와 세 아이의 아버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시는 부분, 김신 선배님의 어린 시절 독립운동가 가족으로서의 삶, 이후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죽음과 가까운 삶, 그리고 조국과 북한에 관한 부분이였다. 죽음,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구조상 죽음을 쉽게 접하지는 않는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군에 몸담기 전에 우리 집안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차른 적이 있다. 그때 처음으로 ‘주검’을 보았다. 우리 가족이 자주 찾아봤던, 항상 웃으시며 뭐라도 하나 더 주려 하시던 분이 관 안에 누워계셨다. 주름 하나, 눈짓 한번, 손짓 하나. 당연히 움직일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더이상 움직이지 않으니 이상했다. 위화감이 들었다. 너무 막연하게 무서웠다. 이것이 내가 처음 죽음을 접한 순간이었다. 쉽게 접하지 않는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만큼 힘든 것이었다. 나만해도 이런데 집만 나서면, 길거리로 나가기만 하면 죽음을 쉽게 접하던 김신 선배님의 어린 시절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좋지않은 끝을 맺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을 보면서 같은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으셨던 선배님, 그리고 제 6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공군사의 한 획을 그으셨던 선배님은 같은 공군인으로서 존경해 마지않는 분이시다. 무엇보다 부하 동료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해보고 노력하는 모습에 인상깊었고, 나또한 그러한 공군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내가 속해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군인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할 이유?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했다. 그게 다였다. 누군가는 그정도 이유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나에겐 더이상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책을 읽다 문득 과거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다. 국가유공자라는 사람들을 먼 친척, 아니 거의 가족도 아닌데 돈 타먹으려고 어떻게든 등록해서 국가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라 막연히 여기며 부정적으로 바라본 일이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뭐라고 아까운 세금을 주냐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랬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나의 행동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린 수많은 선조들의 가슴에 비수를 박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책에서 말해주는 수많은 선열들의 행적들은 이런 아둔한 나를 일깨워 주었다. 대한민국은 소중한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그리고 내가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지켜내야할 곳이다. 책을 읽다보면 생각나는 문구가 있다. 영화 「박열」에서 한 아나키스트가 했던 말이다. “내가 비록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삶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다. 죽으러 가는데 그것이 삶에 대한 부정이 아니면 뭐지 싶었다. 후에도 이 문구가 자꾸 생각이 났었

다.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보니 뭐랄까. 죽음을 장려하는 내용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잊고 있다가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어떤 뜻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확신이 섰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비록 아나키스트가 한 말이지만 독립운동가에게도 군인으로서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의지로 국가를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 이것이 가능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또한 나의 사명. 이 책은 내가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하나하나 몸에 새겨주는 듯 했다.

비단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고일척 마고일장’ “법이 아무리 엄격해도 부패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다.” 어디든 사람이 집단을 이루면 부패는 생기기 마련이다. 책에서 장제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대로 부패는 항상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매순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간부로서 부패는 반드시 없애야 할 적과 같다. 김신 선배님과 같은 군인이 되려면 이런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내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 한 번 읽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꼭 다시 읽어볼 생각이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책을 통해 한 사람의 생애를 본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다. 더욱이 김신 선배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 큰 귀감이 되었다. 하나 더, 책하나가 나를, 내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는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다.

책 한권을 번역할 때 번역가는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 무언가 하나가 무게가 더 나가거나 덜 나가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이 언어의 무게는 번역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대학생 때 내가 생각하는 ‘친구’와 학교 동기들이 말하는 ‘친구’는 말의 무게가 너무나 달라 속으로 당황했던 적이 있다. 나에게 ‘친구’란 단어는 세상에 몇 없는 사람들이고 동기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친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말의 무게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김신 선배님의 「조국의 하늘을 날다」 이 책의 글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배님의 행적, 생각들은 오히려 나를 짓누른다. 이제 내가 선배님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에 대한 중압감 때문일까. 그렇다고 내려놓진 않을 것이다. 무거우면 거뜰히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기르면 된다. 김신 선배님께서 앞서 가신 길 나또한 뒤따라 훌륭한 간부,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우수) 글씨는 차갑다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신희용

일제 강점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 중 가장 추웠던 시기, 그러나 가장 뜨거웠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저 과거의 역사일뿐이 아닌 고작 광복75주년, 아직도 다양한 역사의 산증인들이 살아있고 다양한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2000년 생인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서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상상조차 못한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저 글씨로 적혀있는 사건들만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는 이산가족 문제가 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이해한다고 하면서 통일에는 정작 반대한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알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과거를 배우려 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멀리 있는 하늘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인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역사의 산증인의 생생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책은 역사의 산증인인 백범 김구의 아들인 김신 장군의 회고록이다.

이 책은 김신 일대기를 그려내고 있다. 책에서는 김신 장군님의 어렸을 적 일제강점기의 힘들었던 삶부터 대한민국이 설립되어 조국의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책의 시작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일제강점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시작한다, 어쨌든 그래서 어린시절의 김신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아버지인 김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으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냈기 때문에 김신의 어린 시절은 할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면서 김신은 조종사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다. 김신은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더 나아가 미국에 유학을 통해 더욱더 그 꿈에 한 발 나아간다. 그러던 와중 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한국의 독립이 결정된다. 그렇게 김신은 아버지 김구와 함께 조국의 땅을 밟게 된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 이승만의 정읍발언 등 한반도에서 분단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고 이에 따라 김구는 김일성을 만나러 북으로 간다. 그러나 김구의 이러한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던 반대파들에 의해 김구는 암살당하고 결국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조종사였던 김신은 참전하여 승호리 철교 폭파 사건등으로 다양한 전투에서 한국 공군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안정이 되어가던 도중 박정희의 5·16사건이 발생하고 박정희는 군대의 힘을 이용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간부들을 해외주재대사로 보내게 되었는데, 김신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김신은 타이완 대사로 임명받고 장제스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노년기에는 백범기념관 출판과 「백범일지」의 중국어판 출판 등 다양한 기록물에 신경을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 2016년 5월 19일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별세 하시게 된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많다. 일제강점기의 일반 백성들의 삶, 조종사의 꿈을 꾸 김신, 그 김신의 아버지 김구의 다양한 활동, 타이완 주재 대사로 활동할 당시의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여줬던 김신 장군의 군인정신까지 굉장히 다양한 교훈을 이 책은 담고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조종사로서 조국의 하늘을 날겠다는 꿈 김신도 아니고 김신의 아버지 김구의 노력도 아니다. 내가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알제 강점기를 서술하던 부분이다. 사실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곳이다. 우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너무 차갑게 말한다. ‘무슨 사건에서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다.’ 그저 한 줄로 적힌 이러한 문장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눈물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 글씨는 차갑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정열적이고 사람은 뜨겁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라고 짧게 적힌 문장을 보며 그냥 읽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씨가 차갑다는 것이다, 몇 년, 몇십년의 역사와 수천 수만명의 목숨을 한 줄로 간단하게 서술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알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느낀 생각들이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초안을 잡고 시간이 지난후 글을 쓰기 전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또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다면 부사관 후보생인 나로서 나는 이 책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찾은 것은 6·25전쟁당시 승호리 철교 폭파 등 다양한 작전에 김신 장군이 직접 출격한 것이다. 당시 김신의 지위는 부대장으로 부대 전체를 지휘하고 운영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 발생하는 전사자로 인해 조종사들의 사기가 떨어

지자 김신은 직접 목숨을 걸고 전투현장으로 출격하였다. 솔직히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목숨까지 바쳐가며 출격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부대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독려하기 위함임을 알게되고 그것이 김신 장군의 군인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자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해졌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정신이자 김신 장군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나의 답은 상상력이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그 시대를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꼭 일제강점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제에 대항하기 위했던 조종기술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유발하는 시대적 상황이나 독립운동가였지만 한 명의 아버지였던 김구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군인의 길을 걷고있는 우리의 길 위에서 김신 장군의 군인정신과 각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상상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이 책의 의미고 부사관 후보생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그리 긴 책은 아니었지만 읽으면서, 읽고 난 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우수) 감사합니다, 김신 장군님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이수빈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오랜 기간 역사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아도 애국심은 그 당시에만 차오를 뿐, 금방 다시 잊혀지곤 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하고 사이렌을 들으며 묵념을 올릴 때도, 그저 늘 해왔던 일이고 해야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호국영령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묵념을 올려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도, 떳떳하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내가 부끄럽다. 그러나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은 이런 나의 국가관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 몸을 던져 희생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 장군님. 그분이 겪어오신 비탈지고 거친, 그러나 숭고했던 인생사를 읽고 나니, 우리나라가 보전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수많은 선열들께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지했던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역사교육을 받고, 어떠한 책을 읽어도, 이렇게 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전해져 온 경험은 없었다. 이래서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12년간 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책에 대한 독서감상문을 써 왔었다. 그런데 이번 회고록을 읽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배운 것들과, 책장을 덮을 때까지 느낀 여러 감정들을 어떻게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다른 어떠한 회고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충격 그리고 무게를 가진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 나라가 없으면 나와 우리 가족은 물론,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군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피땀 흘려 가시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과 김신 장군님, 수많은 선열들을 위해서, 미숙하지만 자그나마 느낀 점들을 적어 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 잘 먹으며 성장하고, 적령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하하호호 어울리는, 요즘 아이들의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 하지만 김신 장군님의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태어나실 때부터 나라 없는 설움을 겪으셔야 했던 장군님의 어린 시절. 고국이 아

닌 낫선 상하이에서 할머니께서 개수에 황당을 타주신 물을 드시며 자라시고, 과일이 너무 먹고 싶지만 어린 마음에 나누어 주라고 하지도 못하고 남이 먹다 남은 껍질을 주워 드셨다는 대목에서는 마음 한 구석이 너무 찼했다. 우리 증조할머니께서도 일제강점기의 어려우셨던 유년기를 회상하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먹을 게 없어 겨우겨우 방에서 무척 남는 것을 주워 와 시래기 죽을 끓여 드시기도 했고,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 땐 굶는 날도 흔했다고 하셨다. 난 그런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장면이 상상되어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곤 했다. 식민지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떠안으셔야 했던 어린 장군님과 우리 증조할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읽으니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감정이 들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학교에서, 중국 상해로 하계 현장 체험 학습을 갔었다. 운이 좋게도 선빌이 되어 다녀왔었는데, 그때 상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었다. 청사를 하나하나 돌아보고, 주인 없이 그곳에 남은 허름한 가구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다. 2층 집무실의 의자와 책상 위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땀 흘리셨을 선열들에 대해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그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공간에 있으니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다. 그 건물에서 백범 김구 선생남도 함께 하셨을 것이고, 혼란 속 상해에서 태어나셨을 김신 장군님을 생각하니 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상해에 한번 방문해 보아서 그런지, 김신 장군님의 유년기를 조금 더 생생히 느끼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기후와 언어, 심지어 공기의 냄새마저 낫선 상해에서, 불확실하지만 나라의 독립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보고 달려 가셨을 백범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선열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어받고 싶다 생각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야겠다고 느꼈다.

수학여행을 떠나셔서 미림 비행장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은, 장군님의 조종사라는 운명의 첫걸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다. 어린 김신 장군님의 눈에 비친 쌍엽기의 비행 모습은 얼마나 놀랍고 웅장하게 다가왔을까. 이를 잊지 않으시고 공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 초등학생들을 수송기에 태우고 비행하게 하셨다고 한 대목도 인상 깊었다. 어린 아이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 그 자체인데, 장군님의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게 느껴졌다. 나라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소중히 생각하시는 마음을 배웠다.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시고 기초 비행훈련을 마치신 대목, 그리고 쿤밍에서 인도령 라호르로 이동하여 비행 훈련을 받으시다 독립을 맞게 된 대목

에서는 내가 마치 김신 장군님이 된 것 마냥 기쁨과 설렘이 느껴졌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훈련에 매진하셨던 장군님이 대단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광복을 맞은 조국에 한 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으셨을 텐데,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뜻을 따르시는 모습 때문이었다. 김신 장군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자신의 자리에 남아 최선을 다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애국하는 방법이 뭐 별거 있겠나, 어찌면 당장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내는 것 자체가 애국의 첫 시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군님이 남은 비행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시는 대목을 읽고, 나도 임관 후 내가 맡은 전투기를 꼼꼼히, 열심히 정비하는 일에 대해 큰 책임감과 열정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수료하시고 중국 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하신 장군님은 귀국하신 후 김구 선생님과 함께 38선을 넘으셨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신 것이다. 역사가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든, 김구 선생님과 김신 장군님은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지경인데 주위 눈치보며 계산하고 움직일 여력과 여유가 어디 있겠나. 그 후, 장군님은 육군항공대에 입대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깊었던 대목은 역시 한강 다리 비행이다. 미국이 넘겨준 비행기의 미군 마크 위에 태극 무늬를 덧그리실 때, 장군님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감격스러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다. 책으로 읽기만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그 현장 속에 계셨던 장군님은 오죽하실까. 비행할 때 한강 다리 밑을 통과하시며 그 기쁨을 표현하셨던 마음이 백번 이해되었다.

그 후, 일어나선 안 되는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되었으나, 김신 장군님은 슬퍼하실 새도 없이 전쟁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셨다. 말 그대로 휘몰아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시려는 김신 장군님이 계셨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켜주신 많은 선열들 덕분에, 한국전쟁은 남북으로 가라진 상태로 휴전하게 되고, 김신 장군님은 능력을 인정받아 공군 참모 차장에 이어 제 6대 공군 참모총장에 오르신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쌓아오신 중국과의 인연, 특히 장제스 총통과의 인연은 장군님께 큰 힘이 되었다. 항상 주위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주중 대사,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의 여러 보직들을 거치시며 장군님의 역량을

맘껏 펼치시는 대목에서는, 비록 힘들고 험난한 시간도 많았으나 결국 세상은 노력을 알아준다는 말처럼 장군님의 능력이 인정받게 된 것 같아 나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 군인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학교에 입학했지만, 곧 하사로 임관하게 될 나조차도 나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저 평화로운 현실에 안주하기 바빴다. 그러나 회고록을 읽고 난 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 눈물이 밑바탕이 되었는지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다. 김신 장군님과 백범 김구 선생님은 물론,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사의 흐름 너머로 조용히 잊혀져 가셨을 수많은 이름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고 이러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께 감사하며, 적어도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앞으로 위협받을 수도 있고, 항상 평화로울 것이라 단정지을 수도 없다. 장차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게 될 우리는, 김신 장군님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만약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선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조국의 하늘에 계실 김신 장군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할 수 있게 힘쓰신 장군님의 이름은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을 비롯한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떳떳한 후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려) 영웅이 되어

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조현주

가끔, 자괴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 공군 부사관이 되기 위한 학교에 들어왔지만,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와 닿지 않았다. 처음 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군인’을 직업 중 하나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서서히 느껴갔다. 내가 그저 단순한 돈벌이나 평생 가는 직장으로만 ‘군인’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나는 아직 부사관후보생이자 학생에 불과하지만 석 달도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이 지나면 나는 교육사 연병장에서 임관식을 하고, 항공분야의 멋진 한 부사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3학년이나 되었음에도 나는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을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이 들었다, 내일 아침 전쟁이 일어나도 나의 나라, 주변의 소중한 가족들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다. 그러던 도중 독후감 대회를 통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역사책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나에겐, 결코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오랫동안 천천히 한구절씩 기억하며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으라 하면 나는 단연 ‘승호리 철교 폭파 사건’을 말할 것이다. 학교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이 김신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색다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에서 김신 장군은 비교적 안전한 전술을 버리고 4천 피트 상공에서 강하해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아찔한 전술을 펼쳤다. 고도를 낮춰 가까이 접근해 폭격하다 보니, 폭격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기도 전에 폭탄이 터졌고 이로 인해 비행기 몸통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저고도 폭격을 감행하는 용기가 아니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인도령 라호르로 옮긴 중국 공군 군관학교의 정문에는 탐생파사막입차문(貪生怕死莫入此門)이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죽음을 두려워 살려고 하는 자는 이문을 들어서지 마라’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김신 장군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올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고 수만명

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교육사만 하더라도 진주시 보건소와 함께 진주시의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는 등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번에 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들은 조기 임관하여 대구로 뛰어 들어갔다고 한다. 푹푹 찌는 날씨 아래,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때론 무섭고, 겁나며,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큰 위기들을 매번 무사히 넘겨올 수 있었다. 국가를 위한 신념과 그 마음가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 이자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보통 한국의 사회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흔히들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하지만 정작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비난을 하면,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일어선다. 이런 단적인 사례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 한 켠에는 우리나라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고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공동의 문제가 있거나 나라가 어려우면 두 팔 걷어 올리고 힘을 보탠다. 그 예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계층을 위한 모금을 마련해 기부하고, 자발적으로 대구와 경북으로 봉사를 떠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일 연구조사에 따르면 45개국 중 가장 감염률이 낮은 나라라고 한다. 45개국 34억명 중 5%가 코로나에 감염 되었지만 이중 한국의 감염률은 0.06%로 조사국 중 가장 낮았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끼는 것은 타인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알기에 스스로를 제어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라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개인방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를 “we are all heroes.”라고 외친다. 적극적으로 코로나와 싸우진 못해도 이러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것이다. 김신 장군은 ‘우리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용기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김신 장군이 바랐던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조차 타인을 위해 밤낮 구분없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는 영웅이자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신 장군의 아버지인 김구는 김신에게 해방이 되었어도 계속 공군에 남아있어 기술을 배우라 하였다. 해방된 나라에는 훌륭한 조종사가 필요하다

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를 지켜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자연스레 따라와야 한다는 깊은 뜻이었다. 해방된 후, 윤봉길 의사의 추모식에서 김구는 애국가 4절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 하세'라는 구절을 두 번 부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나라 사람은 기쁠 때만이 아닌,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괴로울 때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김신 장군은 김구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고 대가 없이 헌신했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혼란스러웠던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책을 읽을수록 점점 뚜렷하게 잡혀갔다. 나는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 덕분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아픈 곳 없이 무탈하게 자랐다. 특히 고등학교를 올라와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한층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내가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십 년 전 피땀 흘려 희생하신 순국선열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잠시 내가 망각하고 살았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은혜를 입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보답이나 혜택을 바라지 않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적이 있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나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대가를 바라며 살아왔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순수하게 그것 자체만을 목표, 가치로 삼고 달려간 적이 없었다. 김신은 백범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생활을 하였고, 그것을 당연한 숙명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한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에게 부유한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라가 크든 작든, 부강하든 가난하든,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고 말이다. 김신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군인이 되기 위한 학교에 왔음에도 나라를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그럴 수 있나?'라고 물어봐도 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이 나라가 두 번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며 늘 힘쓸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책을 덮었을 때 표지 속 제목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제목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김신 장군은 이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조국의 하늘을 날아라 는 김신 장군의 뜻이 아닐까 하고 감히 예측해본다. 백범 김구와 김구의 뜻을 이어 남북의 평화를 간절히 바랐던 김신 장군, 그 둘의 헌신에는 100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고 했던가, 분단에서 통일로 향하는 크고 깊은 역사는

모래 시간 흐를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100년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21세기의 사람들에게 '자유'란 당연하면서도 없어서도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는 불과 몇십 년 전 목숨 바쳐 희생하셨던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굳건하게 다져놓은 것이란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영웅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자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훗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 선조들의 신념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켜야 한다. 비록 그는 이제 그 하늘에서 영원히 날게 되었지만, 나는 앞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훌륭한 부사관이 될 것이다.